

서해 북부 해역에서의 海浪賊 활동과 조선정부의 대응*

—海浪島 搜討(1500년)에서 白翎鎭 설치(1609년)까지

류창호**

- I. 머리말
- II. 海浪島와 海浪賊의 실체
- III. 海浪島 搜討 및 刷還 과정
- IV. 白翎鎭의 설치와 海防體制로의 전환
- V. 맺음말

국문요약

‘海浪賊’은 海浪島의 해적들을 일컫는 말이다. 해랑도는 중국 랴오닝성 창하이현의 창산군도에 속하는 海洋島로 추정된다. 이들은 15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약 300년을 넘는 시간동안, 평안도·황해도·경기도·충청도 연안 일대를 연속적으로 출몰하면서 조선정부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중국의 경계 안에 있는 섬인만큼, 조선은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搜討가 어려웠다. 그러는 사이 해랑적은 서해를 대표하는 해적으로 성장하였고,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때때로 이들이 서해 연안지역에 침입한다는 유언비어가 돌아 주민들이 피난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하면, ‘해랑도’와 ‘해랑적’ 문제를 언급하는 기사는

* 이 논문은 2015년 국사편찬위원회의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하대박물관 학예연구사.

1487년부터 1810년까지 총 67회 나온다. 그러나 이들 기사들을 분석해 보면, 해량적 문제는 시대마다 균질한 성격이 아니었다. 문제는 조선후기로 갈수록 해량적 주체가 모호해진다는 데에 있었다. ‘水賊’이나 ‘荒唐船’과 혼동되기도 하고, 때로는 병칭되기도 하며, 18세기 이후로는 근거를 알 수 없는 유언비어들로 그 실체가 과장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조선후기 도성과 연해 주민을 공포로 몰아놓았던 해량적의 실체는 적어도 16세기까지는 물범·사슴 등을 사냥하고 밀매하는 밀무역자였다. 해량도 역시 요동과 평안도, 제주도 등지에서 들어온 유민들의 도피처로 밝혀졌다. 따라서 ‘海禁’을 표방하는 명과 조선은 이들에 대한 搜討와 刷還을 펼쳐야만 하였다. 그러나 요동 해안에 衛所를 설치하지 못할 정도로 요동에 대해 완전한 장악력을 갖추지 못한 명은 이들 도서 유민의 쇄환에 소극적이어서, 결국 조선이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입장에서 해량도 수토와 쇄환에 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역시 조공 책봉 관계에 놓인 전통적인 중화체제 속에서는 한정되고, 제약적인 성과밖에 얻을 수 없었다. 결국 조선정부는 17세기 이후로는 해량적과 황당선의 주요 출몰지인 황해도 지역의 요해처에 水軍鎮을 설치하는 이른바 ‘海防’으로 그 정책적인 변환을 이룬다.

주제어 : 해량도(해양도), 해량적, 수토, 쇄환, 해방정책, 백령진.

I. 머리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해역은 단절인 동시에 소통의 공간이다. 특히 한반도 서해 북부 해역은 해안선을 따라 점철된 크고 작은 섬들이 산동반도까지 이어져,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한·중간의 교역을 이루는 중요한 루트가 되어왔다. 『增補文獻備考』에 “渤海는 비록 바다라고 이르지만 실은 하나의 큰 포구”라는 옛 「齊都賦」의 글귀를 인용하며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음을 강조한 것처럼,¹⁾ 사실 서해 북부 해역은 고대로부터 항행의 어려움이 그다지 크지 않은 곳이었다. 따라서 가장 많이

1) 『增補文獻備考』권35, 여지고23, 관방11, 해로5

이용된 항로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바닷길이 항상 열려있던 것만은 아니다. 14세기 후반, 明이 건국하면서 이른바 ‘海禁’의 시대로 들어선 후로는 ‘한 조각의 널빤지도 바다에 띄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바다가 소통이 아닌 단절을 이루는 시대가 된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엄격한 ‘해금’을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바닷길을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단절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바다와 섬에서 생산되는 무진장한 자원을 획득하려는 모험가(어민과 상인), 해상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표류자, 그리고 전란이나 과중한 부역을 피해서 달아난 도망자들이 하나 둘씩 바다 위의 섬으로 모여들었다. 여기에는 강상죄나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때때로 연안 일대를 침범하며 약탈을 저지르기도 했고, 불법적으로 육지의 상인과 재화를 교환하는 밀무역에 나서기도 하였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이와 같은 ‘해금’의 시대에, 서해 북부 해역에서도 최변방인 海浪島를 근거지로 하여 밀무역과 해적 활동을 일삼은 일단의 해양세력에 대해서이다. 해랑도는 중국 랴오닝성 창하이현의 창산군도에 속하는 海洋島로 추정된다.²⁾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랴오둥반도 창산군도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정부는 이곳을 근거지로 활동한 해양세력을 ‘海盜賊’이라 불렀는데, 이들은 15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약 300년을 넘는 시간동안, 평안도·황해도·경기도·충청도 연안 일대를 연속적으로 출몰하면서 조선정부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중국의 관적에 들어있는 섬인만큼, 조선은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搜討나 刷還이 어려웠다. 그러는 사이 ‘해랑적’은 서해를 대표하는 해양세력으로 성장하였고,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때때로 이들이 서해 연안지역에 침입한다는 讒言이 돌아 도성과 연해 주민들이 마을을 버리고 피난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³⁾

『조선왕조실록』(이하 『실록』)으로 약칭)을 검색하면 ‘해랑도’와 ‘해랑적’ 문제를 언급하는 기사는 1487년(성종 18)부터 1810년(순조 10)까지

2) 海洋島는 다렌항에서 동쪽으로 약 140km 떨어져 있는 5개의 섬과 암초 등으로 구성된 섬이다. 육지면적은 19km²이고, 해안선 길이는 52.5km다.

3) 『順菴先生文集』권9, 書, 答李仲命別紙, 問海浪島.

나온다.⁴⁾ 그러나 이들 기사들을 분석해 보면, ‘해랑적’은 시대마다 균질한 성격이 아니었던 것 같다. 문제는 조선후기로 갈수록 해랑적의 주체가 모호해진다는 데에 있었다. ‘水賊’이나 ‘荒唐船’과 혼동되기도 하고, 때로는 병칭되기도 하며, 18세기 이후로는 근거를 알 수 없는 讒言들과 妖言들로 그 실체가 과장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단순히 ‘해랑도인’으로만 존재하던 시기와 ‘해랑적’으로 불리며 서해 해역을 대표하는 해적단으로 라벨링(Labelling)된 이후의 시기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시기 구분을 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연구자들에게 혼선을 주기도 하고, 또 결론을 짓는 데에 있어 일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지금까지 ‘해랑도’와 ‘해랑적’에 대한 연구 성과들은 결코 많다고는 볼 수 없다. 연구의 범위 또한 부분적이어서 단편적인 사례로 인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최근에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주목되는 논문들이 발표되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해랑도’와 ‘해랑적’에 대한 최근의 연구 성과들은 주로 세 가지 방향에서 연구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조선후기 해랑적과 관련된 변란 사건들을 분석하여 해랑도를 민중들의 ‘섬-이상향’ 담론과 연결시켜 검토한 연구이다. 먼저 고성훈은 조선후기 민중사상의 이념적 배경이 되는 『정감록』의 ‘海島起兵說’과 관련하여 해랑적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18세기 해랑적과 관련된 流言이 정부가 ‘해랑도’와 ‘해랑적’의 실체를 모르고, 또 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반체제적 저항세력의 변란에 이용된 사건으로 규정하였다.⁵⁾ 또한 주장현은 『실록』에 해랑도·해랑적 문제가 300여 년간 장기지속되었다는 것은 당대 민중들 사이에서 해랑적 이야기가 끊임없이

4)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에서 ‘海浪島(海洋島)’와 ‘海浪賊’을 검색하면 총 67회에 걸친 기사가 검색된다. 왕대별로는 성종(8회), 연산군(19회), 중종(13회), 명종(2회), 선조(10회), 광해군(5회), 인조(1회), 현종(1회), 숙종(4회), 영조(2회), 정조(1회), 순조(1회)이다. 통계상으로는 서해의 해방체제가 완비되는 광해군·인조대 이후 해랑적 언급은 급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18세기 이후 더 심각해져 간다.

5) 고성훈, 「조선후기 ‘海島起兵說’ 관련 변란의 추이와 성격」, 『조선시대사학보』3, 조선시대사학회, 1997.

유포·확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것이 당대 사회에서 신화적 차원으로 전승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료의 부족으로 해랑적의 생활사가 온전히 전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워하고 있다.⁶⁾

둘째, 明과 조선의 서해 북단 해역에서의 경계와 분쟁 사례로 해랑도를 살펴본 연구이다. 서인범은 『연행록』 등의 사료를 이용하여 해랑도·蘓島 등, 서해 북단 해역 도서들에 대한 경계 의식의 변화, 유민 쇄환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외교 문제 등을 검토하였다.⁷⁾ 아울러 해랑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구도영은 16세기 조·명간의 경계인 압록강 하구 도서의 각종 분쟁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조선정부가 명과의 외교적 교섭을 통해 이 섬들을 공한지대로 남겨둔 것은 소국의 입장에서 국경 분쟁의 씨앗을 만들지 않은 최선의 방법이며, 외교적 노력의 성과물이라고 평가하였다.⁸⁾ 두 연구 모두 15~16세기 요동지역 내륙 안의 ‘국경 완충지대’가 도서지역에도 똑같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해랑적을 조선과 명, 양측의 중심에서 벗어난 邊境人들의 교류를 통해 만들어진 ‘境界人’으로 파악한 연구이다. 이는 ‘水賊’이나 ‘荒唐船’ 등 동시대에 서해해역에서 활동한 해양세력의 실체를 파악한 연구와 궤를 같이한다.⁹⁾ 주로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연구는 전 근대 시기, 서해를 포함한 동아시아 해역 전체를 육지와는 다른 마지널 [주변·경계]한 해역세계로 상대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타카하시 기미야키(高橋公明)와 이영권은 해랑적을 15세기 이후 대규모의 출륙유랑

6) 주강현, 「해랑도와 해랑적」, 『유포피아의 탄생』, 들레개, 2012.

7) 서인범, 「조선시대 서해 북단 해역의 경계와 島嶼 문제—海浪島와 蘓島를 중심으로」, 『명청사연구』36, 명청사학회, 2011.

8) 구도영, 「16세기 조선의 압록강 하구 도서에 대한 영토인식과 외교전략」, 『역사와 현실』97, 한국역사연구회, 2015.

9) 六反田豊, 「十五・十六世紀朝鮮의 ‘水賊」, 『中近世の朝鮮半島と海域交流』, 汲古書院, 2013; 高橋公明, 「十六世紀中期の荒唐船と朝鮮の對應」, 『前近代の日本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1995; 藤田明良, 「海域史からみる朝鮮王朝の空島政策」, 『東京大學コリア・コロキウム講演記録』, 東京大學 大學院 人文社會系研究科 韓國朝鮮文化研究室,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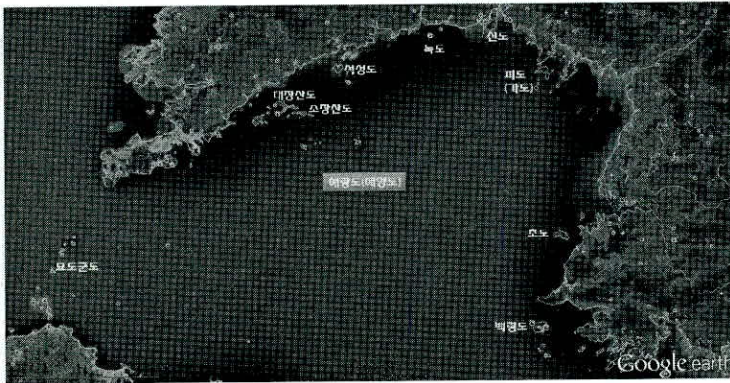
하게 된 ‘濟州島民’과 관련시켜 고찰하고 있다.¹⁰⁾ 아울러 이와는 다르게 16세기 국경을 넘나들며 불법무역을 직접적으로 수행한 ‘義州人’의 경제 인적 활동상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¹¹⁾

그러나 위와 같은 연구 성과들만으로 ‘해랑도’와 ‘해랑적’에 대한 실체가 파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는 사료의 부족과 기술의 모호성 등으로 그 원인을 삼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관련 자료에 대한 종합적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기만 하다. 따라서 본고는 『실록』 등에 나오는 ‘해랑도’와 ‘해랑적’ 관련 기사를 기타 문집류와 지리지 자료들과 함께 검토해 봄으로써, 그 실체와 정부의 대응책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우선 2장에서는 조선정부로 하여금 오랫동안 그 실존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고, 또 정책상 혼돈을 야기시킨 해랑도의 실체와 그곳의 경제적 기반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성종대부터 광해군대에 걸친 약 120여 년간의 해랑도 수토 논의와 도민 쇠퇴 과정을 시기별로 고찰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17세기 이후 해적 집단으로 폭력화되는 ‘해랑적’의 실체와 ‘수적’, ‘황당선’ 등 여타 해양세력과의 차별성 유무를 검토하고, 조선정부가 ‘수토·쇄환책[空島政策]’에서 ‘海防政策’으로 정책적 변경을 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겠다. 시간적인 범위는 응당 조선시대 말까지 설정하여야 하겠으나, 우선 ‘해랑적’의 전형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15세기 말부터 17세기 초까지의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0) 高橋公明, 「海域世界の交流と境界人」, 『周縁から見た中世日本』, 講談社, 2001; 이영권, 『조선시대 해양유민의 사회사』, 한울, 2013.

11) 구도영, 「16세기 조선 對明 불법무역의 확대와 그 의의」, 『한국사연구』170, 한국사연구회, 2015.



〈그림 1〉 오통반도와 평안·황해도 연안의 주요도서(Google earth 지도에서 발췌)

II. 海浪島와 海浪賊의 실체

1. 미지의 섬, 海浪島

1487년(성종 18) 11월 30일, 의금부에서 豊川人 文仲과 金非羅 등 5인이 獐子島에서 水牛를 잡다가 표류하여 海洋島에서 金州의 나졸들에게 붙잡혀서 왔다는 보고가 올라왔다.¹²⁾ 이 기록은 『실록』에서 보이는 ‘해랑도’와 관련된 첫 사례이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기사에서 ‘해랑도’라고 하지 않고 ‘해양도’라고 했다는 점을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해랑도’는 조선 측에서만 사용한 명칭이고, ‘해양도’는 원래의 지명으로 현재까지 중국 측에서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는 명칭이다.¹³⁾

한편, 장자도는 압록강 하류의 薪島, 또는 그 주변의 섬이다.¹⁴⁾ “路引

12) 『성종실록』권209, 18년 11월 30일(을축)

13) ‘해랑도’ 이전에 ‘해양도’로 기록된 기사가 먼저 나오는 것으로 보아 ‘해양도’가 원래의 지명임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 중국 측 기록에서 ‘해랑도’로 기록된 기사가 찾아지지 않으므로, ‘해랑도’는 조선 측에서만 불리어진 지명으로 보인다. 현재의 중국 측 지명 역시 ‘해양도’이다.

14) 『순조실록』(권5, 3년 9월 2일)에는 장자도가 龍川府의 薪島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馬鞍島, 또는 대장자도, 소장자도 등 별개의 섬으로 지칭한 기록도 있다. 여기에

을 받아 왕래한 지가 오래되었다”는 말로 보아 황해도 풍천의 어부가 장자도에서 수우를 잡다가 중국의 경계인 해양도까지 표류하여 海洋犯越을 저지르고 만 것이다. 이때 조정의 의론은 정식으로 노인을 받아 해물을 채취하던 어민을 ‘私越冒渡’의 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1492년(성종 23) 3월, 의주 근처에서 조개잡이를 하다가 해양도로 표류한 11명의 조선인이 명 측에 붙잡히면서 또다시 불거졌다. 체포된 조선인들 중에 중국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각 배마다 개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 1487년 김비라 등이 金州衛千戶에게 체포되었던 상황과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았다. 遼東都指揮使司는 자문을 통해 이들이 조개잡이 배라고 말한 것은 믿기 어려우며, 앞으로 국경을 넘는 일은 절대 허용치 않을 것임을 통보하고 있다.¹⁵⁾

『실록』에서 처음으로 ‘해랑도’가 기록된 시기는 1492년(성종 23) 8월이다. 宣傳官 辛殷尹이 자기 종의 남편인 宋田生이 해랑도에 왕래함을 의심하여 승정원에 고발한 것이다. 다만 이 당시 조선정부는 ‘해랑도’와 ‘해양도’가 같은 섬임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송전생에 대한 의금부의 추국 과정에서 또 다른 무리인 高益堅이 체포되어 해랑도에는 5戶가 있고, 새로 濟州人 20여 명이 함께 살고 있다는 진술이 나왔다.¹⁶⁾ 특히 이곳에 평안도민은 물론 제주도민까지 도망하여 들어갔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바로 몇 달 전, 요동에서 조선인이 범월을 한 사실을 자문하였는데, 또다시 어딘지도 모르는 섬에서 제주인들까지 살고 있다는 것은 조선정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이처럼 성종대에 잇따른 ‘해양도/해랑도’ 범월 사건이 일어나자, 조선정부는 제일 먼저 이 섬이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무엇으로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파악부터 나섰다. 고익견의 공초 과정에서 평안도민과 제주인 등 부역을 피해 절도로 숨어들어간 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이는 신속한 쇄환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대해서는 서인범의 「조선시대 서해 북단 해역의 경계와 島嶼 문제—海浪島와 薪島를 중심으로」, 353~356쪽을 참조.

15) 『성종실록』권266, 23년 6월 9일(무신)

16) 『성종실록』권268, 23년 8월 4일(임인)

우선 ‘해랑도’로 불리는 섬은 황해도 장연에서 주야로 8일 만에 도착한다는 것으로 보아 조선의 경계 안에 있는 섬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만일 중국의 경내에 들어있는 섬이라면, 반드시 명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따라서 의금부가 곧바로 쇄환을 실행할 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조정 중신들은 제동을 가하였다. 여기에 대해 盧思愼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長淵縣으로부터 표류하여 주야로 8일 만에 海浪島에 이르렀다고 했으니, 이 섬은 아마도 요동 지경에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의 絶島는 아닌 듯합니다. 또 東寧衛 사람이 거쳐와 언어 의복이 우리나라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하니, 섬에 살고 있는 다섯 집이 동녕위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가탁하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섬의 소재 지역과 물길의 원근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갑자기 조관을 보내 쇄환해 오는 것은 아마도 온당하지 못할 듯합니다.¹⁷⁾

여기서 노사신이 말한 東寧衛 사람이란 元末明初 고려와 조선에서 요동으로 월경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동녕위가 설치된 遼陽 인근을 중심으로 집단생활을 하며 독자적인 고려·조선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다.¹⁸⁾ 『세조실록』에 의하면 동녕위에 소속된 고려·조선인이 洪武年間에만 3만여 명이었고, 永樂年間에는 漫散軍 4만여 명이 추가되어 대략 7만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¹⁹⁾ 이러한 수치는 요동의 총 호구수의 10분에 3에 달하며, 지역으로도 서쪽 遼陽으로부터 동쪽의 開州, 남쪽의 海州·蓋州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였다. 노사신은 이들이 다시 유민이 되어 해랑도로 들어왔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가정할 만한 일이었다. 성종은 일단 해랑도 쇄환의 뜻을 遼東都司에 移咨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었다. 아울러 해랑도를 왕래하는 자는 犯越의 형률에 맞추어 絞刑에 처하겠다는 뜻을 중외에 반포하였다.²⁰⁾

17) 『성종실록』 권268, 23년 8월 10일(부신)

18) 유재춘 외, 『근세 동아시아와 요동』, 강원대학교출판부, 2011, 112~113쪽.

19) 『세조실록』 권34, 10년 8월 1일(임오). 漫散軍이란 동녕위에 거주하던 조선인이 ‘靖難의 변’ 등 혼란기에 압록강을 넘어 조선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요동으로 쇄환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한편, 앞의 고익건의 공초에서 제주인 20여 구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 타카하시 기미야키는 이 기사를 근거로 해랑도의 제주 해민집단을 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²¹⁾ 이영권 역시 제주유민이 지닌 역동적인 해양성의 증거로 주목하고 있다.²²⁾ 그리고 『실록』에는 제주인과 해랑도의 관계를 증명하는 또 다른 기사도 있다.

전교하기를, “어제 刑曹의 公事를 보건대, 刷還되는 濟州 사람들이 압송하는 사람을 죽이려 하여 지극히 완패한 짓을 하였으니 이는 국가의 큰 변이다. 만일 섬을 의지하여 세력을 꺾게 된다면 뒤에는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니 모름지기 이때에 수색해서 토벌하여 임금의 법을 보여 주어야 한다. 각도의 감사·병사·수사들로 하여금 끝까지 수색하여 토벌하도록 함이 어떠할는지 대신들에게 문의하라.” 하였다. …(중략)… 南袞·李惟清은 의논드리기를, “비록 군사를 출동하지 않더라도 각도의 모든 진들이 출동한다면 시끄럽게 될 듯합니다. 또한 그들이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을 듣는다면 편히 있게 되지 못할 것을 알아차리고서 중국 諸島 및 海浪島로 도망치게 될 것이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도 연안의 각 고을·포에다 그 사람들의 용모와 나이를 자세히 諭示하여 살폈다 잡도록 함이 편리합니다.”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²³⁾

1522년(중종 17) 5월, 중종은 출륙유망한 제주인을 쇠환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을 보고 받고, 각 도서에 대한 철저한 수색과 처벌을 전교한다. 그러나 위의 기사에서 보이듯이 남군 등의 대신들은 군사를 일으키는 소란스런 쇠환이 도리어 유민들을 해랑도 등의 중국 도서로 도망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기서 쇠환의 대상이 되는 유민들은 처음에 중종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제주인들이다. 따라서 30여 년 전 해랑도에 제주인 20여 구가 살고 있었다는 고익건의 공초는 거짓이 아니었을 것이다. 또한 1435년(세종 17)에 조선정부는 제주도의 牛馬皮 교역자들을 牛馬賊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평안도의 邊邑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조치를 취한 적도 있다.²⁴⁾ 이들

20) 『성종실록』권273, 24년 1월 29일(을미)

21) 高橋公明, 『海域世界の交流と境界人』, 『周縁から見た中世日本』, 講談社, 2001, 343~344쪽.

22) 이영권, 위의 책, 149~150쪽.

23) 『중종실록』권44, 17년 5월 28일(계유)

이주 대상자는 1435년에 650명, 이듬해인 1436년에는 800명가량이 되었다고 한다.²⁵⁾ 이처럼 대규모로 평안도에 이주한 제주인과 그 후손들이 이후 또 다시 유민이 되어 해랑도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해랑도가 1500년(연산군 6) 6월에 수토되어 요동인(중국인) 78명과 조선인 34명이 쇠환되었을 당시,²⁶⁾ 체포된 조선인은 대부분 평안도 출신이란 사실만 보일 뿐, 특별히 제주인은 기록되지 않았다.²⁷⁾ 해랑도가 발견되고 수토되기까지는 8년이라는 짧은 기간이므로 제주인이 중국인이나 평안도민으로 동화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마도 각지의 섬과 연해로 유랑하는 그들의 특징상, 수토되기 전에 해랑도를 빠져나가 다른 섬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런데 1500년 수토된 해랑도는 원래의 해양도가 맞을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海浪島招撫司 田霖의 보고에 의하면 해랑도 수토를 위해 이들이 경유한 섬들은 薪島, 鹿島, 黑豆串, 往界島, 仇乙鵲伊島, 水牛島, 小長山島 등이었다.²⁸⁾ ‘후두곶’이나 ‘왕계도’, ‘구을골이도’ 등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현재로선 알 수 없으므로 해랑도의 위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1528년(중종 23), 해양도에서 표류되어 장산곶에 온 중국인 崔堂 일행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조선정부는 이들을 해랑도인으로 확신하고 있었다.²⁹⁾ 해랑도는 곧 해양도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근거는 아마도 1500년 해랑도 수토의 결과로 여겨진다. 연산군대의 해랑도 수토는 요동 창산군도의 섬 주민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기어 후대에 계속 전승되어졌다. 약 100여 년 후인 1607년(선조 40)에도 현지의 뱃사람들은 해양도를 과거 전림 일행이 수토한 곳으로 기억하고 있었다.³⁰⁾

이처럼 조선정부는 적어도 17세기 초까지는 해랑도를 해양도에 비정

24) 이영권, 위의 책, 125~135쪽.

25) 『세종실록』권67, 17년 1월 14일(병술) 및 『세종실록』권72, 18년 6월 20일(을묘)

26) 『연산군일기』권38, 6년 6월 28일(경술)

27) 『默齋集』권5, 雜著 「舅氏參贊趙公墓碑銘」 “庚申夏。平安道邊民逃入海浪島。藉爲巢窟。勢將滋蔓。慮近上國。搜括之舉。未敢擅發。”

28) 『연산군일기』권38, 6년 7월 9일(신유)

29) 『중종실록』권62, 23년 8월 6일(을사)

30) 『선조실록』권211, 40년 5월 2일(갑자)

하며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후에는 19세기까지 “그곳이 어디에 있는 섬인지 알 수 없다”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생산되고 있다. 해랑도가 연산군대에 직접 수토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는지 위치조차 모르는 미지의 섬이 되고 만 것이다. 아울러 ‘해랑도인’이란 말도 사라진 채, 폭력적 성향을 지닌 ‘해랑적’이 그 이름을 대치하고, 또 이들을 ‘수적’이나 ‘황당선’ 문제와 함께 병칭하면서 실체가 모호한 집단으로 만들어버렸다. 여기에 대해 성호 李瀾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燕山朝때에 田霖은 李祐과 더불어 海浪島를 무찔렀는데, 이 사실은 미덥게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당시에 군사를 얼마나 썼는지, 계략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니 너무도 한심한 일이다. 오늘에 이르러 해랑도의 賊이 서해에 들락날락하여 30~40년간에 조정의 깊은 근심거리가 되었는데도 그 섬이 어느 곳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니 예와 이제의 구별이 이와 같다.³¹⁾

그러나 위와 같이 해랑도가 다시 미지의 섬으로 된 까닭은 이익의 말처럼 기록의 부실도 있겠지만, 해랑도 이름 자체가 중국에서 부르는 이름과 달라서 벌어진 일일 수도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해랑도는 원래 ‘해양도’라고 불렀는데, 이 해양도가 해랑적이 있는 해랑도인지는 조선시대말까지 계속 의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홍치제가 칙서를 통해 “해랑도가 어디에 소속된 해도인지 모르겠다”고 한 말을 가지고, 명이 해랑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보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 이는 틀린 말이다. 성종대 해랑도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도 요동도사가 해양도에서 불잡힌 표류민을 송환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명은 계속해서 해양도에 있는 주민들을 쇄환하였고, 이는 淸朝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청대에는 해양도가 아닌 또 다른 이름도 보이고 있다. 1731년(영조 7), 1745년(영조 21), 1748년(영조 24)에 ‘磴磴磯’라는 섬에서 조선인이 불잡히거나, 閑雜人이 무리를 이루어 인삼과 담배 가족을 밀매하고 있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는데, 『五洲衍文長箋散稿』의 저자 李圭景은 이 ‘磴磴磯島’가 해랑도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다음은 이규경이 중국 측 자료

31) 『성호사설』권25, 經史門, 田霖

로부터 얻은 ‘등등기’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磴磴磯의 땅은 사방 800리인데, 남쪽에는 大靑島가 있고, 북쪽에는 小靑島가 있으며, 4월에 꽃이 피고, 8월에 눈이 내린다. 동쪽으로는 조선 訓戎의 경계와 100여 리에 이르고, 바다와는 수십 리 떨어져 있다. 배가 아니고서는 능히 건너지 못하는데, 다만 깊고 얕음이 고르지 않아 大船 또한 갈 수 없다. 그 안의 匪類들이 배를 만들었는데, 이름이 ‘快馬’이다. 작고 가벼워 불과 수 石만을 실을 수 있다. 한 두 사람이 노를 저어도 매우 빠르다. 가을에 거둬들인 양식 절반을 대청도의 움막에 묻어 두어 봄이 올 때 인삼을 채취하는 자금으로 준비한다. 서남쪽의 船廠까지는 800리에 이르는데, 인삼을 판매하는 것으로 무역을 하여 선창으로 가져 온다. 선창으로부터 瀋陽까지는 800리이고, 寧古塔까지는 700리이다. 그 사이에 있는 水灘子是 150리이다. 健人과 壯馬가 아니면 통과할 수가 없다. 풍속은 質質하여 단지 사람 형태만 갖추었을 뿐이다.³²⁾

위의 기록에 의하면 ‘등등기’는 대청도와 소청도의 사이, 그리고 동쪽의 조선 경계와는 100여 리 떨어져 있는 섬이 된다. 대·소청도가 어느 섬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으나 만일 황해도의 섬을 말한다면 물론 있을 수 없는 지역이다. 다만 ‘快馬’라는 작고 빠른 배를 타고 다니고, 섬을 근거지로 인삼 등을 밀무역하는 모습은 여러모로 해랑적과 닮아있다.

2. 해랑적, 해적인가 밀무역자인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랑적’ 이전에 ‘해랑도인’이 있었다. 이들은 폭력적 성향의 해적이기 전에 요동, 평안도, 제주도 등지에서 각기 유망한 유민들이었다. 이들이 절해의 고도인 해랑도로 모여들어서는 과연 어떠한 생활을 하였을까? 여기서는 우선 『실록』에 보이는 해랑도 사

32) 『五洲衍文長箋散稿』, 天地篇, 「海浪島磴磴磯辨證說」 “磴磴磯地方八百里。南有大靑島。北有小靑島。四月開花。八月降雪。東至朝鮮訓戎界百餘里。海隔數十里。非船莫能渡。但深淺不等。大船亦不得行。其中匪類等所造船。名快馬。小且輕。不過載數石。一二人棹轉甚捷。秋成所獲之糧。半入大靑窩埋。以備來春採蔘之資。西南至船廠八百里。貿易賣蔘。俱來船廠。自船廠至瀋陽八百里。至寧古塔七百里。間有水灘子百五十里。非健人壯馬不得過。俗質質。只具人形。”

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1> 『조선왕조실록』에 보이는 해랑도인의 경제생활

연번	연도	내용	전거
1	1492년	海洋島라고 이르는 곳에서 高麗의 배 두 척을 만났는데, 배를 부리는 사람은 10명이었으며, 각각 항아리와 개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夏聽 등이 협공하여 사로잡으니, 그들은 朝鮮國의 義州 사람으로서 國王에게 奉進하려고 조개잡이를 나선 것인데, ...〈하략〉...	『성종실록』 권266, 23년 6월 9일 (무인)
2	1492년	섬 안에는 다섯 집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말씨는 중국 사람을 닮았고, 사슴 가죽을 입고, 火田을 일구어 농사를 지었으며, 漁獵을 생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성종실록』 권268, 23년 8월 4일 (임인)
3	1493년	海浪島는 중국의 지경에 있는데, 우리나라 백성들이 몰래 왕래하면서 水牛를 잡아오니, 중한 법을 세워서 엄하게 금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종실록』 권273, 24년 1월 12일 (무인)
4	1494년	良人 張弼此同 등이 禁畝를 어기고 海浪島에 들어가 水牛脯 2천 70첩, 皮 1백 1장, 곡물 80석을 취하여 실어온 죄는 律이 首犯인 兪諶 등에게는 絞待時에 해당합니다.	『성종실록』 권295, 25년 10월 17일 (임신)
5	1498년	농업을 일삼지 않고 혹은 노루·사슴·海羊皮·魚肉을 팔고 혹은 연해 주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을 생업을 삼으며, 또 고려 사람도 역시 자주 왕래하여 興販을 하므로 이로 인하여 養生하고 있다 하옵니다.	『연산군일기』 권31, 4년 12월 11일 (임인)
6	1500년	登州府 海戶의 말이, “海中에서 배를 운영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조선국의 사슴 잡는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섬 안에 불이 밝은 것을 보고 〈가본 즉〉 구리 손가락 등의 물건이 남아 있었다”고 하니, 본국의 前項 도망해 들어간 사람들이거나 혹은 중국 근방 해변의 군사나 백성이 그곳에 있다가 몰래 들어간 것인지 모른다.	『연산군일기』 권37, 6년 4월 3일 (병술)
7	1526년	박구경이 “3도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大生 蛤 등의 물품을 많이 채취해 온 것을 보면 틀림없이 海浪島 사이를 왕래하면서 水賊노릇을 한 것 같다” 했습니다. 신 등의 뜻에도 수적 노릇을 했다면 그들의 집에 반드시 水牛의 가죽이나 牧場 말의 가죽 등의 물품이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중종실록』 권57, 21년 11월 16일(을미)
8	1528년	海洋島 주민은 40여 호인데 모두 중국 사람들이며, 朝鮮 사람들이 장사하러 왕래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일이고, 다만 전에 들으면 龍川과 麟山에 사는 사람이 黃角을 채집하는 일로 왕래하다가 지금은 일체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중종실록』 권62, 23년 7월 30일 (기해)
9	1528년	그믐날 아침에 떠나 저녁에 海洋島로 왔고, 20일 만에 섬사람들 7~8명과 함께 사냥 나와 노루 20마리를 잡아 포를 떠 말렸습니다. ...〈중략〉... 섬의 둘레는 40여 리인데 큰 산이 있고 무논은 없으며, 단지 밭만 있는데 모두 척박했습니다.	『중종실록』 권62, 23년 7월 30일 (기해)

<표 1>의 5, 9번 기사에서 보이는 것처럼 해랑도는 큰 산이 있고 척박한 땅이어서 농사보다는 漁獵을 통해 얻어진 특산물을 밀무역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곳의 대표적인 특산물은 水牛, 사슴·노루, 조개(대생합), 黃角 등이었다. 1487년 해양도 표류민의 첫 사례처럼 배에 개를 싣고 다녔다는 것은 사슴·노루 등의 사냥을 했다는 증거이다. 8~9번의 중국인 표류자들도 배에 개를 싣고 다녔다. 그러나 여기서는 해당도인의 경제생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水牛’와 ‘水牛皮’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주연문장전산고』는 ‘수우’와 ‘수우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水牛는 달리 그 종이 있어서, 安南에서 나오는데, 모습은 멧돼지[野豬]와 비슷하고, 색은 蒼黑이며, 인가에서 기르고 경작하는 데 사용하거나 잡아먹는다. 날씨가 더우면 낮에 모두 물에 들어가서 헤엄을 친 후에야 나온다. 그 뿔이 매우 크니 지금의 黑角이다. 倭人이 무역한 이래 우리나라로 흘러들어 왔고, 가죽 역시 나오니, 지금 水牛皮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나 嘉支·海狗 등의 가죽도 水牛皮라고 混稱하기도 한다.³³⁾

위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水牛’는 安南에서 나오는 소의 별종[물소]이고, ‘水牛皮’는 倭人들이 무역하는 물소의 가죽이지만, 嘉支[강치]나 海狗[물개] 등의 가죽도 ‘수우피’로 혼칭한다는 사실이다.

강치나 물개 등의 海獸類를 일컬어 ‘鰭脚類’라고 한다. 우리나라 해역에는 과거 4종의 기각류가 서식하고 있었다. 이 4종의 기각류란 서해북부와 발해만, 그리고 동해 북부 표트르大帝灣에서 서식하는 점박이물범(Phoca largha), 동해와 독도에서 서식하는 북방물개(Callorhinus ursinus)와 바다사자(Eumetopias jubatus), 그리고 쓰시마해협부터 큐슈 연안, 동해와 독도 등에 걸쳐 서식하는 일본강치(Zalophus californianus japonicus)이다.³⁴⁾ 따라서 3, 4, 7번 기사에 나오는 ‘수우’는 요동반도와 발해만,

33) 『五洲衍文長箋散稿』萬物編, 「嘉支強治海馬鱧鱓辨證說」 “水牛則別有其種。出安南。形如野豬。色蒼黑。人家畜養。作耕或屠食。以日氣熱。故晝則盡入水。日沒後方出。其角甚大。卽今黑角。倭人貿取以來。流及我東。皮亦出來。今稱水牛皮者。是也。然以嘉支、海狗等皮。混稱水牛皮。”

34) 伊藤徹魯·藤田明良·久保金弥, 「朝鮮半島周辺海域の鰭脚類: 朝鮮の古文獻のニホンアシカとゴマフアザラシ」, 『野生生物保護』Vol. 6-2, 野生生物保護學會, 2001, 52쪽.

그리고 서해북부 해역에서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임을 알 수 있다.³⁵⁾ 아울러 『오주연문장전산고』는 동해의 ‘강치’와 서해의 ‘鰓鱗’이 모두 ‘嘉支’의 종류임을 논증하고 있다.

北關 六鎮·慶源·慶興의 海中에 짐승이 있는데, 그 모습이 소나 말과 비슷하고, 꼬리와 지느러미가 있으며, 털은 짧고 흑갈색이며 물에 젖지 않는다. 이를 强治 혹은 海馬라고 부른다. 경원·경흥 두 海津社의 海漁民이 총을 쏘아 포획한다. 그 가죽은 매우 두껍고 머리는 커서 소와 같지만 머리끝의 내부는 매우 연약하고 무르다. 牛皮를 삶으면 맛이 매우 비리나 기름을 얻는 것이 많고, 안장·풀무·가죽신과 자루 등을 만들 수 있다. 이 동물이 바로 울릉도에서 나는 嘉支인데, 北海人은 이를 强治라고 부르며, 또 海馬라고 칭하거나 可之라고 칭한다. 嘉支는 傳寫하다가 달라진 것이다. 『說文』을 상고해 보니, “鰓은 가죽에 무늬가 있고, 樂浪의 東曉縣에서 나온다. 神爵 4년 초에 포획하여 考功에게 輸納하였다.”고 하였다. 『楚辭·大招』에 “鰓鱗은 短狐[물여우]이다(注). 鰓鱗은 短狐類이다(補注).”하였다. 모양은 犁牛[얼룩소]와 비슷한데, 지금 水牛라고 속칭한다. 그 가죽에 무늬가 있어 신발을 만들거나 안장을 장식한다고 한다. 이것이 어찌 동북해중의 嘉支라는 것이 아니겠느냐?³⁶⁾

위의 사료에서 말하는 『說文』의 ‘鰓’이나 『楚辭·大招』의 ‘鰓鱗’ 역시 서해의 유일한 기각류인 ‘점박이물범’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 즉, 여기서도 모양이 ‘얼룩소[犁牛]’와 비슷하다고 하여 ‘수우’로 속칭한다고 하고 있다. “가죽에 무늬가 있어 신발을 만들거나 안장을 장식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사치품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7번 기

35) 서해의 ‘점박이물범’은 겨울철 중국 발해만의 빙해 위에서 번식하여, 이듬해 백령도로 남하해 성장한다. 1940년대 약 8천 마리에 육박하던 것이 현재는 350~400여 마리로 그 개체수가 크게 줄어, 천연기념물 제331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36) 『五洲衍文長箋散稿』萬物編, 「嘉支强治海馬鰓鱗辨證說」, “按北關六鎮慶源、慶興海中有一獸。其狀如牛似馬。有尾鬣。毛短黑褐色。不染水。名强治。或稱海馬。慶源、慶興兩海津社海漁民放丸捕取。其皮極厚。頭大如牛。而頭尾之內。甚軟脆。牛皮煎。味甚腥腫。取油亦多。可作鞞鞣鞋紙。此物乃鬱島所產嘉支。而北海人則呼之以强治。又稱海馬者也。稱以可之。嘉支者。傳寫有異也。按《說文》。鰓。皮有文。出樂浪東曉縣。神爵四年初。捕收輸考功。《楚辭·大招》鰓鱗短狐注。鰓鱗短狐類補注。狀如犁牛。今俗呼爲水牛。其皮有文。可制履飾鞞云。此豈非東北海中嘉支者乎。”

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7번 기사는 1526년(중종 21) 11월, 江華의 3도[아차도·불음도·말질도] 어민 76명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大生蛤을 채취하였다는 사실로 해랑도를 왕래한 水賊으로 몰린 사건이다. 이때 포도청은 가장 먼저 이들의 집을 수색해 ‘水牛皮’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수우피’가 발견되지 않아 76명의 어부들은 모두 석방되었지만, ‘수우피’의 존재가 해랑적임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로 사용되었다는 점, 그리고 한양의 입구인 강화도에서까지 고가의 사치품인 ‘수우피’가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해랑적의 밀무역의 범위는 매우 폭넓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조선정부가 ‘해랑적’으로 규정한 해랑도인은 적어도 16세기까지는 연안 일대를 약탈하는 ‘해적’이라기보다는 ‘물범 사냥꾼’ 내지 ‘물범 밀무역자’로 규정하는 편이 더 옳을 것 같다.

그렇다면 ‘해랑적’이란 명칭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일까? 타카하시 기미야키는 한국어 또는 조선어 사전에 수록된 ‘海浪賊’, ‘海浪船’이란 단어의 의미가 각각 ‘해적’과 ‘해적선’으로 나오고 있듯이, ‘해랑’은 ‘해적’, 그리고 ‘해랑도’는 ‘海賊島’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였다.³⁷⁾ 그러나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들 해랑적의 폭력화 경향이 나타나는 시기가 17세기 이후라면, ‘해랑도’의 지명 유래는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5번 기사에 나오는 ‘海羊皮’이다.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水牛’가 점박이물범이라면, ‘海羊’ 역시 점박이물범은 아닐까? 만일 ‘水牛’와 ‘海羊’이 동일어라면 해랑도의 원래 이름인 ‘海洋島’는 ‘海羊島’, 즉 ‘물범섬’일 수도 있다. 1500년 해랑도 수도 당시 해랑도 동쪽 2리에 ‘水牛島’란 이름의 섬이 있었음을 상기할 때, ‘海羊島’가 ‘海洋島’가 되고, 다시 ‘海浪島’로 바뀌었을 가능성은 있다.

조금은 번잡하긴 하였지만 지금까지 『실록』 등의 사료들을 분석하여 ‘해랑도’와 ‘해랑적’의 실체를 규명해 보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해랑도가 중국 측에서는 ‘해양도’, ‘등등기’ 등으로 다르게 불리어 혼선을 주었지만, 적어도 17세기 초 이전까지 조선정부는 해양도를 해

37) 高橋公明, 『海域世界の交流と境界人』, 『周縁から見た中世日本』, 講談社, 2001, 344쪽.

량도로 정확히 비정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명칭은 해랑도의 특산물인 점박이물범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다. 아울러 17세기 이후 해적의 대명사처럼 된 ‘해랑적’으로 불리기 이전의 ‘해랑도인’은 요동(동녕위), 평안도, 제주도 등지에서 유망한 유민들이며, 주로 물범 사냥과 밀매, 어렵 등으로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16세기 ‘해랑도인’이 아무리 폭력적 약탈 행위를 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국경을 넘어 피역하고, 또 밀무역을 감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과 조선 양측 모두에게 중대한 범법행위였다. 犯越 그 자체만으로도 양국 모두 絞刑이나 梟首刑으로 다스려지며, 범월자를 잡지 못한 변장도 처벌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조선정부는 해랑도 문제가 발생한 직후부터 수토와 쇄환을 적극 추진하였다. 다음으로는 성종대부터 광해군대에 걸친 해랑도 수토와 쇄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海浪島 搜討 및 刷還 과정

1. 성종~연산군대의 해랑도 수토 및 쇄환

1492년(성종 22) 8월, 처음으로 해랑도인 쇄환을 촉구하는 咨文이 요동도사에게 보내졌다.³⁸⁾ 그러나 왕대가 연산군으로 바뀔 때까지 요동도사의 회답은 없었다. 그러는 사이 해랑도를 내왕하는 사람은 늘어만 갔고, 1497년(연산군 3) 10월에는 遼東千戶와 鳳凰城千戶가 조선인 표류자를 압송하여 義州 義順館에 도착한 후, 직접 咨文을 가지고 조선 국왕에게 교부하겠다고 억지를 부려 조선정부를 곤란케 만들기도 하였다.³⁹⁾ 대신들은 이들 표류자가 필시 해랑도를 왕래하는 자들일 것이라 추측하고, 그 대책 마련에 고심하였다.

해랑도인 쇄환의 방법은 주로 세 가지 방식으로 논의되었다. 첫째, 요동도사에게 재차 자문을 보내는 방법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

38) 『성종실록』 권268, 23년 8월 10일(무신)

39) 『연산군일기』 권28, 3년 10월 18일(병술)

이 요동도사는 5년째 회답하지 않고 있었다. 둘째, 요동도사를 거치지 않고 우리 사신을 통해 직접 明 황제에게 奏聞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잘못하면 요동도사에게 책임이 물어져 외교적으로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셋째는 임시변통책이다. 武才가 있는 武士로 하여금 吏文으로 작성된 평안도관찰사의 공문을 가지고 섬을 몰래 수색하게 하는데, 만일 明軍에게 발각되면 표류자로 위장하자는 것이다.⁴⁰⁾ 그러나 이 방법은 명과의 무력충돌까지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하여 대신들의 반발이 컸다. 특히 윤필상은 高皇帝 당시 脫脫 승상 휘하 3백여 명이 평안도로 투항한 일로 10만호의 쇠환 요구를 받은 사실을 상기시키며 무리한 쇠환에 반대하였다.⁴¹⁾ 결국 요동도사에게 자문을 다시 보내되, 만일 요동도사가 주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황제에게 직접 주문할 뜻을 보여 압력을 가하자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아울러 조선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해랑도에 관한 직간접적인 정보 수집에 나섰다. 1498년 (연산군 4) 管押使 李蓀은 요동도사와 遼陽館夫의 말을 빌려 다음과 같이 해랑도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都司 葉廣, 舍人 李浩의 말에 의하면, 金州衛 동남해 중에 海浪島란 섬이 있는데, 사방 1백 리나 된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賦役을 도피한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이 섬으로 잠입하였을 뿐더러 懿路縣 馬軍·東寧衛 土人 郭成이 죄를 얻고 처자를 데리고 이 섬에 들어와 연해의 백성을 유인하니, 해마다 점점 번식하여 인가가 50여 호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曠성은 자칭 총병관이라 하고 휘하 사람은 曠 持揮·千戶·百戶·摠旗라고 칭한다 하옵니다. 또한 遼養館夫 庾英이 이르기를, 金州·蓋州 2衛의 동·남해 중에 72 개의 섬이 있는데, 해랑도가 가장 커서 주위가 3백 여 리나 되며, 關 밖의 25衛에는 인민이 강도, 살인, 강상을 범한 중죄인이 수없이 잠입하여 거의 1천여 호에 달한다 합니다.⁴²⁾

요동도사 섬광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해랑도는 사방 100리이고, 인가가 50여 호에 달한다고 하였다. 더욱이 요양관부 유영은 해랑도를 포함한 요동 일대 72개의 섬에 거의 1천여 호에 달하는 도망자들이 있다

40) 『연산군일기』권29, 4년 4월 21일(병술)

41) 『연산군일기』권31, 4년 9월 6일(신축)

42) 『연산군일기』권31, 4년 12월 11일(임인)

고 하였다. 특히 요동 연안의 섬으로 부역 도피자나 강도, 살인, 강상을 범한 중죄인이 수없이 잠입하고 있다는 점, 연해의 백성을 유인하거나 약탈한다고 하는 폭력성은 두 정보 모두 동일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시급한 수토 및 쇠환이 요구되었고, 조선정부는 명 황제에게 직접 주문하여 수토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였다.⁴³⁾ 그리고 원래 招撫司 1인이 종사관을 데리고 가려던 계획도 변경하여, 초무사 1인, 부사 1인, 문·무종사관 6인으로 수토관의 규모도 확대시켰다. 아울러 倭·女眞·漢學 통사 각 1명씩과 이전에 해랑도를 왕래한 高正男 등을 함께 데려가기로 하였다.⁴⁴⁾

1500년(연산군 6) 4월, 드디어 해랑도 수토를 허락하는 명 황제의 칙서가 도착하였다. 弘治帝는 “변경에 누를 끼치게 될까 두려워 사람을 보내어 데려가고 싶지만, 한편 중국의 백성들이 있을까 염려되어 관원을 보내어 수색할 것을 청한다 하니, 죽히 대국을 섬기는 성의가 있음을 보겠다”고 하며 해랑도 수토를 허락하면서, “만일 확실한 중국 사람으로 혹 납치되었거나 표류된 사람들이 있거든 즉시 사람을 시켜 그들을 요동의 守臣에게 송환하여 인계시켜 따로 관리하여 이곳 서울[북경]로 보내와 定奪하게 하고, 이어 그 쇠환한 사람의 성명과 숫자를 가지고 주문을 만들어 보내오라”고 하여 중국인을 철저히 구별하여 송환시킬 것을 당부하였다.⁴⁵⁾

海浪島招撫使에는 同知中樞府事인 田霖이, 副使에는 司導寺正인 李埒이 임명되었다. 원래 초무사로 발탁된 사람은 이점이었으나, 武臣으로 초무사를 선발해야 한다는 대간의 반대로 인해 전림으로 교체하였다.⁴⁶⁾ 아울러 종사관에는 判官 成順全, 僉正 鄭克仁, 經歷 金世鈞, 李宗仁, 正郎 郭宗藩, 修撰 趙元紀 등 6명의 文·武官이, 衛將에는 許城, 柳涓 등 2명과 部將으로 林昱, 金許孫, 趙允琛, 姜以溫, 朴桓 등 5명이 임명되었다. 軍官 30명은 모두 무인에서 선발하였고, 병졸은 200명이었다. 기타 舟子 및 指路者 약간이 포함되어 수토군의 총 규모는 700여 명이 되었다.⁴⁷⁾

43) 『연산군일기』권31, 4년 12월 12일(계묘)

44) 『연산군일기』권37, 6년 3월 18일(임신)

45) 『연산군일기』권37, 6년 4월 3일(병술)

46) 『연산군일기』권37, 6년 4월 3일(병술) 및 동년 4월 8일(신묘), 동년 4월 12일(을미)

이들은 1500년(연산군 6) 5월 25일, 평안북도 龍川을 출발하여 뱃길로 12일이 걸리는 해랑도에 도착하였고, 수도를 마친 후, 6월 20일에 용천으로 還泊하였다.⁴⁸⁾ 출발에서 귀환까지 모두 25일이 소요된 것이다. 해랑도의 수도를 마쳤다는 초무사 전림의 보고는 다음과 같았다.

신 등이 해랑도에 이르니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집터만이 19개가 있을 뿐인데, 耕牛 3마리가 방목되어 있고 또 사람의 발자취가 있으므로 이를 찾아보니 4인이 배를 타고 해랑도 동쪽 2리쯤 되는 水牛島로 가서 정박하므로 즉시 이들을 포위하고 잡아서 그 나머지 사람들의 간 곳을 몰으니 대답하기를, “小長山島로 옮겨 갔는데 그들은 발갈이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長山島까지 들어가 중국사람 78명과 우리나라 사람 34명을 잡아 돌아와서 이미 龍川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수색하여 잡을 때 중국사람 李敬이 威從甲士 平自中을 쏘아 죽였습니다.⁴⁹⁾

위의 기사를 통해 볼 때, 해랑도 수도 계획은 사전에 정보가 누설되어 이미 도민들이 모두 섬을 떠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쪽 2리쯤에 있는 水牛島에서 4인을 체포하여, 도망친 도민들이 서쪽 2일 정도의 거리에 있는 小長山島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唐人 78명과 我國人 34명을 쇠환하는데 성공한다. 이들을 搜捕할 당시 甲士 1명이 살해당하기는 했으나, 다른 큰 문제없이 수도는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7월 9일, 한양으로 돌아온 전림과 이점은 연산군에게 복명하면서 해랑도 수도 과정을 더욱 자세히 보고하고 있다. 이들은 처음 龍川의 少爲浦를 출발하여 薪島, 鹿島, 黑豆串, 往界島, 仇乙鵲伊島를 거쳐 海浪島

47) 『盧白亭文集』권3, 雜著, 「題海浪島圖」 “海浪島逸在西海中。爲逃連淵數者久。國家欲遣兵搜討。以地近上國界。未敢擅發。乃具由奏請。皇帝勅曰可。上命同知中樞臣田霖爲招撫使。司導寺正臣李埴爲副。其從事有六。曰判官成順全, 僉正鄭克仁, 經歷金世鈞, 李宗仁, 正郎郭宗藩, 修撰趙元紀。皆文武才也。衛將二。曰許斌, 柳湄。部將五。曰林昱, 金許孫, 趙允琛, 姜以溫, 朴桓。軍官三十。皆武人之選也。兵卒二百。舟子及指路者又若干。摠七百餘人。”

48) 위와 같음 “弘治庚申五月戊寅。發龍川。水行十二日。見所謂海浪島者。直擣其穴。竝探近島。如網取而櫛出。魚潛蝨處者無所遁其形。乃俘乃繫。回舟言旋。六月壬寅。還泊于龍川。往返凡二十五日。”

49) 『연산군일기』권38, 6년 6월 28일(경술)

에 도착하였고, 인근 水牛島에서 仇自毛知 등 4명을 사로잡아 이들로부터 도민들이 小長山島로 옮겨갔다는 정보를 얻은 후, 다시 鹿島를 거쳐 소장산도에 가서 남녀 70명과, 巖穴에서 나머지 31명을 체포하였다는 것이다.⁵⁰⁾ 이튿날, 해랑도 쇄환의 공으로 초무사, 부사, 종사관은 물론 향리와 보충대, 고공과 격군, 공·사천에 이르는 모든 공로자들이 포상을 받았다.⁵¹⁾

그러나 한편으로는 해랑도에서 체포된 중국인들을 송환하는 과정에서 뜻밖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조선인 3명이 중국 여자와 결혼하여 낳은 5세 이하의 어린 자녀 4명을 어느 나라로 보내느냐는 문제였다. 조선의 법도에 따르면 응당 從父法을 따라야 하나, 明의 힐문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조정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모친을 따라 중국으로 解送하기로 결정한다.⁵²⁾

2. 중종대의 해랑적 수색과 송환과정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의하면 조선정부가 해랑도를 수토한 것은 모두 세 차례로, 1496년(연산군 2), 1500년(연산군 6), 1611년(광해군 3)이다.⁵³⁾ 그러나 『실록』에서 찾아지는 해랑도 수토는 앞에서 살펴 본 1500년 한 차례뿐이다. 혹, 나머지 두 차례의 수토가 명에게 주문이나 자문 없이 비공식적으로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기록으로 전해지는 것이 없으니 확신할 수 없다. 다만 1528년(중종 23) 7월부터 10월까지, 해양도에서 표류하여 황해도 長淵縣으로 온 중국인 선원 4명을 체포하고 송환하는 과정에서 해랑도 문제가 심각하게 다시 거론된 사실이 『실록』에 전해진다. 조선정부는 이들 표류민을 해랑적으로 끝까지 의심했으나, 이들이 중국인이었던 만큼, 최대한 예우를 해주어야만 했다. 그리고 이들

50) 『연산군일기』권38, 6년 7월 9일(신유)

51) 『연산군일기』권38, 6년 7월 10일(임술)

52) 『연산군일기』권38, 6년 7월 7일(기미)

53) 『五洲衍文長箋散稿』, 天地篇, 「海浪島磴磴礮辨證說」, “嘗見我東野乘。則有所謂海浪島。而不知在於何方。但燕山二年丙辰、六年庚申。光海三年辛亥。搜括海浪島。而亦不明言的在某海。又不分疆域之繫於中我。”

이 타고 온 2척의 배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뜻밖에 薪島에서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또 다른 중국인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는 이와 같이 복잡하게 엮여지는 서해 북부 해역의 경계 문제와 조선의 수토·쇄환 정책을 알아보고, 임진왜란 이후 해랑도 수토가 포기되고 서해안의 海防 정비 및 강화 정책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528년(중종 23) 7월, 황해도관찰사로부터 장연현에 표류된 중국인 4명을 구류하였고, 이들이 타고 온 배 2척은 수포하지 못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⁵⁴⁾ 중종은 이들이 중국인인 만큼 한양으로 데려와 공초할 것을 명하면서, 의복과 양식을 후하게 대접하고, 절대 결박하지 말 것, 예조가 전담하여 추문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심지어 이들이 가져온 개도 키워주라고 하였다. 아울러 수포하지 못한 唐船을 쫓는 ‘唐人搜捕敬差官’을 임명하면서도, 이들을 수포할 때 절대 먼저 활을 쏘지 말 것, 충돌이 일어나 사망자가 생기면 시체를 버리지 말고 가져올 것, 그리고 이들을 구료할 물품들을 챙길 것 등도 지시하였다.⁵⁵⁾ 그러나 이들은 해양도에서 사냥을 하다가 표류된 자들인 만큼, 중종은 속으로 해랑도의 도적일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이 요동으로 송환된 후, 조선에서의 일을 거짓 진술한다면 외교적으로 곤란한 일이 생기므로 이를 두려워한 것이다. 일의 사안 역시 명에 직접 주문해야겠으나, 자칫 요동도사가 관하를 단속하지 못했다는 죄를 얻을까봐 요동에 移咨하는 것으로 하였다.⁵⁶⁾

7월 30일, 예조에서 4명의 중국인에 대한 추문이 이루어졌다. 공술에 의하면 이들은 요동의 臨江에 사는 崔堂과 그의 아우 崔五, 사촌형 崔保, 사돈인 張奉이었다. 이들 외에 배에서 내리지 않고 도망친 자들은 모두 48명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4월 18일 요동을 출발하여 요동대인의 개 한 마리와 민가 사유의 그물 26장, 개 9마리, 활과 화살 등을 지니고 해양도로 가서 노루 사냥을 하였다. 이곳에서 노루 20마리를 잡고 돌아가던 중, 바다에서 표류하여 7월 17일 장산곶에 정박하게 되었다. 그리고 위의 4명이 湄叉浦로 가다가 관군과 만나 체포되고, 배에 있던 나머

54) 『중종실록』권62, 23년 7월 22일(신묘)

55) 『중종실록』권62, 23년 7월 23일(임진)

56) 『중종실록』권62, 23년 8월 6일(을사)

지 48명은 그대로 도망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요동도사의 명으로 섬으로 사냥을 나간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正德 13년과 嘉靖 6년의 비문을 보이었다. 해양도에 관해서는 40여 호가 있으며 모두 중국인이고, 자신들이 20일간 있는 동안 조선인이 왕래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⁵⁷⁾

그러나 조선정부는 이들의 주장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우선 해금이 엄격한 나라에서 먼 바다 위의 섬인 해양도까지 사유의 그물과 병기를 싣고 간 점, 대인의 명이라며 증거로 보인 비문의 발급 시기가 맞지 않는 점, 이들 중 조선의 語彙를 쓰는 자가 있는 점, 도망친 사람들의 성명을 은휘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러하였다. 그렇다고 중국인인 이들을 형장 추문하여 진술을 받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따라서 公事로서 미리 통사를 요동에 보내 이들의 해적 행위 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⁵⁸⁾

결국 최당 일행은 9월 11일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압송되었다. 육로로 압송된다는 사실을 알고 압해관에게 “너와 내가 한 칼에 같이 죽겠다”고 저항하기도 하여 이들이 해양도의 도적임을 더욱 의심케 만들었다.⁵⁹⁾ 9월 16일, 遼東館에 도착한 압해관 車允祖는 이튿날 최당 일행을 요동도사에게 넘기고 그 심문 과정을 지켜보았다. 예상한대로 최당 일행은 범을 어기고 섬에서 어렵을 행하다가 표류하여 해외로 나간 것이 밝혀졌고, 이들이 지닌 비문도 모두 가짜임이 들통 났다. 최당 등은 고문으로 1백 대를 맞고, 다시 곤장 20대를 맞았으며, 이들이 지닌 弓箭과 의복 등은 모두 압수되었다.

이처럼 조선은 범월자 및 표류자 송환 문제에 있어서 요동도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만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다. 요동도사가 부당한 뇌물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압록강 하구로 불법 이주하는 중국인에 대해서 애써 비호하는 모습도 보였다.⁶⁰⁾ 경우에 따라서는 범월자들의 불법행위가 요동의 관리들과 긴밀히 연관된 경우도 있었

57) 『중종실록』 권62, 23년 7월 30일(기해)

58) 『중종실록』 권62, 23년 8월 7일(병오)

59) 『중종실록』 권62, 23년 8월 20일(기미)

60) 『중종실록』 권62, 23년 8월 6일(을사)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양국 간의 영토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즉 범월자나 표류자가 비록 도적이거나 하더라도 만약 이들이 중국인이라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쇄환하고 송환하는 방식을 유지한 것이다. 이는 소국인 조선이 살아남는 방법이기도 하였다.

한편, 도망친 중국배 2척을 수포하기 위해 각도에 경차관들이 파견되어 수색에 나섰는데, 이때 공교롭게도 평안도 경차관이 薪島에서 중국인들이 48호나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⁶¹⁾ 신도는 조선의 경계에 있는 섬이므로 웅당 이들을 바로 쇄환하여 요동으로 돌려보내야 했으나, 이 역시 요동도사에게 移咨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⁶²⁾

3. 선조~광해군대의 해랑도 수도 논의 과정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명의 해금정책이 점차 이완되자, 조선정부는 더 이상 수도와 쇄환의 방식으로는 서해안에 급증하는 해적 세력을 막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선조대에 이르러서는 ‘小醜’라고 깔 본 해랑적 조차 막아내기가 버거운 실정이었다. 1607년(선조 40) 선조는 “회초리로 때려 다스릴 만한 海浪島의 두건 쓴 도적들마저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산 송장이지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말하기도 부끄럽다”라며 엄격한 균율을 세워 해랑도 수도에 나설 것을 지시하였다.⁶³⁾ 그러나 비변사는 이번 해적들이 모두 해랑도에 사는 사람들의 소행인지의 여부도 확실치 않다며, 과거 刑笏의 軍門에서 활약한 朴薰을 통해 해랑도의 정황을 먼저 알아보자는 대안을 제시한다.⁶⁴⁾ 이전에 해랑도를 왕래한 경험이 있는 박훈은 지도를 보며 해양도가 과거 전림이 수도한 해랑도가 맞으나, 현재는 4~5호에 불과하고, 인근의 石城島가 인가가 많으니 이번 변란을 일으킨 무리들은 필시 해양도와 석성도의 사람들이

61) 『중종실록』 권62, 23년 8월 24일(계해)

62) 신도 문제에 대해서는 서인범의 「조선시대 서해 북단 해역의 경계와 島嶼 문제—海浪島와 薪島를 중심으로」(『명청사연구』36, 명청사학회, 2011)에 자세하다.

63) 『선조실록』 권209, 40년 3월 13일(병자)

64) 『선조실록』 권209, 40년 3월 14일(정축)

서로 모여 출몰한 것일 거라는 의견을 내 놓았다.⁶⁵⁾ 하지만 비변사로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해랑도와 석성도를 수토할 명분이 없으므로 이 일은 점차 미루어져 가기만 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사건이 터졌다. 칠산군수 柳旻과 미곶첨사 康孝業이 水賊과 전투를 벌이며 13급을 베었으나 아군도 10명이 전사하고 군수와 첨사도 심한 중상을 입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⁶⁶⁾ 『실록』에는 이 수적의 정체가 나타나 있지 않으나 정황상 이들 수적은 중국인이었던 것 같다. 며칠 후 선조는 다음과 같이 전교한다.

해랑도의 水賊이 근년에 바다에 출몰하여 노략질한 일을, 갖추어 기록해서 遼東에 移文하여 엄히 금하도록 미리 근본적인 조처를 취하였다더라면, 오늘날 전쟁하여 서로 죽이는 사변이 발생했다라도 이처럼 어려운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인데, 일찍이 조처하지 못한 것이 애석하다. 앞으로 奏聞해야 되는가, 아니면 요동에 移咨해야 하는가? 그리고 죽은 사람은 어찌할 도리가 없으나 빼앗긴 물건은 일일이 기록하여 요동에 이자하여 되돌려 보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니, 아울러 의계하라.⁶⁷⁾

이처럼 선조는 비변사가 해랑도 수토를 빠르게 조치하지 않아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리고 사건의 경위를 요동에 移咨하라고 명하는 것으로 보아 희생된 수적은 중국인인 것 같다. 이후 조선정부는 더 이상 해랑도 수토를 거론하기가 힘들어졌다. 1611년(광해군 3)에 다시 요동도사에게 자문을 보내 신도와 해랑도를 수토할 것을 요청한 일이 있지만 이 역시도 이루어지지 못했다.⁶⁸⁾

조공책봉체제로 맺어진 명과의 관계 속에서 조선은 해랑도 수토와 쇄환을 위해 지극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해랑도에 대한 실제적인 관할권이 요동도사에게 있었던 만큼 먼저 요동도사에게 자문하고, 요동도사가 이를 다시 명 황제에게 주문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사행단을 통해 명 황제에게 직접 주문할 수도 있었

65) 『선조실록』권211, 40년 5월 2일(갑자)

66) 『선조실록』권213, 40년 윤6월 19일(경진)

67) 『선조실록』권214, 40년 7월 1일(신묘)

68) 『雪壑先生文集』권2, 雜著, 「白翎島誌」

지만, 이에 따른 요동도사와의 관계 악화가 염려되고, 또 명의 영토에 대한 불편한 오해에 휩쓸릴 우려도 있어 쉽게 추진할 수 없었다. 아울러 실제적으로 수토와 쇠환을 추진할 경우, 여기에 발생하는 비용도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1500년(연산군 6) 3월, 의정부에서 평안도가 피폐해지는 8가지 일 중의 하나로 해랑도초무사가 가지고 가는 식량을 운반하는 일을 끊고 있을 정도로 해랑도 수토와 쇠환에는 많은 물력과 인력이 동원되었다.⁶⁹⁾ 이에 따라 좀 더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이 요구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서해 요해처에 水軍鎭을 설치하여 해랑적과 황당선을 방비하는 소위 ‘海防’으로의 정책적 변환을 모색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다.

IV. 白翎鎭의 설치와 海防體制로의 전환

1. 海浪賊의 폭력화 과정

17세기 이후 명의 ‘해금’이 점차 이완되면서 서해 북부 해역에는 ‘수적’, ‘해랑적’, ‘황당선’ 등 해적 세력이 빈번히 출몰하게 되었다. 이는 이전 시기 단순히 밀무역과 어로활동을 위해 해양 범월을 감행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민간의 재물은 물론 관영 조운선의 미곡마저 노리는 조직화되고 폭력화된 세력이었다. 그렇다면 해랑도인이 ‘해랑적’이란 이름으로 폭력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부터일까? 『실록』의 기사를 살펴볼 때, 그 시기는 임진왜란을 겪고 난 1600년대 이후이다. 가장 먼저 1603년(선조 36) 7월의 기사에 보인다. 즉, 이때 평안북도 龍川의 彌串에서 양곡을 운반하던 배가 약탈을 당했는데, 조선정부는 이를 ‘해랑도의 水賊’들 소행으로 판단하였다.

海浪島의 水賊이 彌串에서 양곡을 날라 오던 배를 약탈한 뒤로 이익을 얻은 것을 달갑게 여겨 兩西의 연해 지방에 마구 출몰하는데, 요즈음에 더욱 심합니

69) 『연산군일기』권37, 6년 3월 22일(병자)

다. …(중략)… 그 땅의 면적은 경기의 德物島보다 조금 큰데 병기는 전혀 없고 돌덩이나 몽둥이만을 가지고 배를 타고 나다닌다고 합니다.⁷⁰⁾

위의 기록을 볼 때, 우선 ‘해랑적’이라고 하지 않고, ‘해랑도 수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실록』에서 ‘해랑적’으로 명칭하기 시작한 것은 광해군대 이후이다. 이전까지는 보통 ‘海浪島人’, ‘海浪島(海洋島)居人’이라고 하였고, 위의 사례처럼 ‘海浪島水賊’으로 ‘수적’과 연관시킨 사례가 몇 개 발견된다. 기존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水賊’은 “倭人에 의한 해적행위, 즉 倭寇·倭賊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로 조선인 해적을 의미한다”고 하였다.⁷¹⁾ 그러나 위의 사례는 로쿠탄다 유타카(六反田豊)의 지적처럼 16세기 이후로는 ‘수적’의 의미가 당초의 語義에서 벗어나 왜구 이외의 해적 내지 비합법적 활동의 종사자를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말이 된 것을 의미한다.⁷²⁾ 그러나 위의 기록만을 가지고 ‘해랑도 수적’을 정확히 ‘해랑도인’으로 규정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심적이다.

아울러 병기는 없이 ‘돌덩이나 몽둥이’만 가지고 다닌다는 이들의 특색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광해군대에도 해랑적은 “병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몽둥이와 돌덩이를 가지고 곳곳에서 출몰하여 선척을 노략질 한다”고 하여 마치 이와 같은 행위가 해랑적의 전형적인 해적 행위로 비춰지고 있다.⁷³⁾ 그러나 이 역시 단지 해랑적에만 한정된 모습은 아니었다. 15세기 제주도와 남해 연안에서 활동하던 ‘鮑作干’도 投石을 주요한 전투행위로 하고 있었다. 1485년(성종 16) 領事 洪應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신이 前日에 沿海의 여러 고을을 두루 살펴보니, 鮑作干이 해변에 장막을 치고 일정한 거처가 없이 船上에 寄生하고 있는데, 사람됨이 날래고 사나우며 그 배가 가볍고 빠르기가 비할 데 없어서, 비록 폭풍과 사나운 파도라 하여도 조금

70) 『선조실록』권164, 36년 7월 1일(을묘)

71) 타카하시 기미야키, 「中世東亞世亞海域에서의 海民과 交流—제주도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112~113쪽.

72) 六反田豊, 앞의 논문, 314쪽.

73) 『광해군일기』권57, 4년 9월 12일(계묘)

도 두려워하고 꺼려함이 없으며, 倭賊이 이를 만나도 도리어 두려워하고 피해서 달아납니다. 신이 그 배 가운데를 보니, 큰 돌이 수십 개 있으므로 신이 쓸데를 물어보았는데, 대답하기를, “倭船을 만났을 때 이 돌을 사용하여 던져서 치면 부서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⁷⁴⁾

또한 ‘돌덩이와 몽둥이’로 조선 水軍과 충돌한 사례는 황당선[異樣船]에서도 나타난다.

英祖 11년(1735)에 異樣船 3척이 椒島鎭에 와서 정박하여, 요망하던 장수 李時贊 등 2인을 잡아 가므로, 僉使 孫壽聃이 軍校를 거느리고 가서 그들이 越境한 일과 사람을 잡아 간 것을 문책하니, 배의 사람들이 각각 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난타하고, 몸에 가진 물건들을 빼앗아 갔다. 얼마 후에 또 큰 배 1척이 挾船과 함께 와서 椒島鎭에 정박하므로 代將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뒤를 쫓으니, 큰 소리를 지르고 정을 치면서 돌덩이를 마구 던졌다. 계속 추격하니, 큰 배는 도로 달아나고 작은 배의 3인이 잡혔는데, 곧 登州의 고기 잡는 자들이었다.⁷⁵⁾

위의 사례들을 보듯이 ‘鮑作干’이나 ‘황당선’들은 해량적과 마찬가지로 투석전을 벌이거나 몽둥이를 사용하여 상대(倭賊이나 조선수군)와 대적하고 있다. 따라서 ‘돌덩이’나 ‘몽둥이’를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모두 해량적이 될 수는 없다. 다만 황당선과는 타고 다닌 배나 규모가 다르므로 구분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해량적은 앞서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나오는 ‘快馬’와 같은 작고 빠른 배[鮑作船]를 이용하였다. 황당선들이 한 배에 80~100여 명에 달하는 승선인원을 싣고 수십 척이 무리를 이루며 이동하는데 반해, 해량적은 겨우 10명 내지 100여 명의 인원이 한 무리를 이루어 이동하는 소규모 집단이었다고 한다.⁷⁶⁾ 그러나 다음의 사례들은 이러한 황당선과 해량적의 구분조차 쉽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주로 17세기 중반의 상황이다.

保寧의 어부들이 訥伊島에 갔다가 갑자기 賊船을 만나 배와 의복, 양식 등을

74) 『성종실록』 권177, 16년 4월 12일(계해)

75) 『중보문헌비고』 권35, 여지고23, 관방11, 해로6

76) 『선조실록』 권209, 40년 3월 14일(정축)

모두 약탈당했는데 어부들을 섬 속에 버려두고 가서 겨우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도적들은 모두 靑衣를 입고 있었는데 작은 모자를 쓰기도 하고 머리를 싸매기도 하였으며 漢船인지 海浪賊인지 분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⁷⁷⁾

해적들 모두가 머리를 깎고 胡巾을 썼으며 언어 역시 胡인과 비슷하였는데, 바로 海浪賊이라고 하는 자들이었다.⁷⁸⁾

첫 번째 사례는 1639년(인조 17)의 상황이다. 해랑적이 충청도 해안까지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배가 황당선[漢船]인지 해랑적의 배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63년(현종 4)의 두 번째 사례는 이러한 모습을 해랑적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다. 위의 두 사례로 보아 당시 조선정부는 ‘靑衣를 입고, 모자[胡巾]를 썼으며, 胡인과 비슷한 말을 하는 자’들을 해랑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 이와 같은 해랑적의 모습은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海島 세력의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일종의 공포감으로 다가왔다. 『道誑秘記』에 실린 다음의 예언이 그것이다.

푸른 옷을 입고 남쪽으로부터 오니 胡도 아니며, 倭도 아니다. …(중략)… 오직 저 爨邑이 총명하고 神異로우며 예지롭다. 군사를 서쪽 변방에서 일으키니 天子가 그 공을 아름답게 여긴다. 세 이웃이 도와서 鷄龍山에 세 아들이 편안하게 도움을 정할 것이다.⁷⁹⁾

이처럼 17세기 이후에야 비로소 그 명칭을 얻은 ‘해랑적’도 정확히 ‘해랑도인’과 등치된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수적’이나 ‘황당선’과 병기되어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후기로 가서는 ‘海島眞人說’을 표방하는 각종 비기류와 오버랩되면서 그 실체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다만 앞서 해랑도 수도 과정에서 보았듯이 ‘해랑도인’이 단순히 해랑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장자도, 석성도 등 창산군도 연안 섬들을 이동하며 생활하고 있었던 점을 상기해 보자. ‘해랑적’은 여타 해양 세력과

77) 『인조실록』권39, 17년 9월 7일(신유)

78) 『현종실록』권7, 4년 9월 27일(신묘)

79) 고성훈, 앞의 논문, 138쪽에서 재인용.

마찬가지로 ‘유동하는(floating)’ 존재였다.

2. 白翎鎭의 설치와 海防體制의 실현

19세기 중엽에 제작된 『東輿圖』의 백령도 지도에는 “날이 맑은 날 높은 곳에 올라 바라보면 [중국] 登萊의 여러 섬이 보인다(天晴登高, 望登萊諸島)”고 하고, 그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주기가 표시되어 있다.

큰 섬이 있어 평안도 바다 가운데에서 시작하여 계속하여 서로 이어져 전라도 바다 가운데에 이르기까지 그 끝을 헤아릴 수가 없다. 대개 바다 가운데 산록 대간이 비스듬히 이어진 것이다. 가운데 火洲草가 있는데 백령(도)의 서남쪽에서 바라보면 가히 볼 수 있다. 조류가 있어 초의 동쪽에 있는 것은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에 있는 것은 서쪽으로 흐른다. 水勢가 초에 가까이 접근하면 심히 두렵고 급하다. 배가 만일 초의 서쪽으로 넘어 들어가면 다수가 표류하여 중국 산둥성의 등래에 이른다. 초의 근처에는 조기가 많이 나서 어선들이 초의 근처에 많이 모인다.⁸⁰⁾

위의 기록은 백령도 서남쪽에 위치한 火洲草를 기점으로 조류와 水勢가 바뀌어 순식간에 중국 산둥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높음을 경고함과 동시에 이곳에 풍부한 어장이 존재함을 알리고 있다.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그만큼 백령도와 중국은 가까운 곳이고, 또 풍부한 어장으로 인해 중국 어민들이 쉽게 이곳에 모여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백령도는 해양적을 비롯하여 황당선과 수적들이 가장 빈번히 출입하는 요해처가 되었다.

1609년(광해군 1) 도체찰사 李恒福은 이들 해적세력이 출입하는 길목인 백령도에 새로운 水軍鎭을 설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백령도는 남으로는 江華, 북으로는 椒島와 연결되는 만큼 가장 적합한 군사적 요충지였던 것이다.

80) 『東輿圖』(奎10340) “有大嶼、自平安道海中始、繼續相連至于全羅道海中、其端倪不可測。蓋海中山麓大幹橫巨者也。中有火洲草、自白翎西南望之、若可見焉。海潮之在草東者東流、在草西者西流、而水勢近草、則充悍急。舟船若越入草西、則多漂到登萊。草之近處多石首魚、漁船多萃會於草之近處。”

대체로 백령도는 서쪽 大洋에 똑바로 맞닿아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作弊하러 들어오는 해적들이 반드시 이 섬에 몰래 정박하여 여기에서 뿔나무를 하고 여기에서 물을 길어 마시고 여기에서 順風을 기다린 다음에 비로소 內洋으로 들어와 海西에서 도착질을 하고, 혹은 正西風을 얻어 남쪽으로 내려가서 忠淸道와 全羅道 등지로 들어가기도 하니, 이 섬은 바로 해적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문지방과 난간이 되었습니다. …(중략)… 지금 해아리건대 廣巖, 阿郎 두 진은 重浦 안에 숨겨져 있어 그 外洋과는 聲勢가 요원하니, 이 두 港浦를 합해서 하나의 大鎮으로 만들고 여기에 他軍을 더 보조하여 堂上僉使鎮을 만들어서 그 위엄을 증하게 해야겠습니다.⁸¹⁾

조선 초기 황해도 연안에는 왜구의 침공에 대비해 甕津 館梁에 僉使鎮을 두고, 海州 龍媒鎮, 康翎 巡威梁, 長淵 大串梁과 阿郎浦, 豊川 豊川梁, 殷栗 廣巖梁 등 6개의 萬戶鎮을 설치하여 각 진마다 4~9척의 병선과 400~500명의 船軍을 배치하였다.⁸²⁾ 그러나 이들 수군진들은 주로 內海나 江 어귀, 혹은 灣 안쪽의 풍랑을 피하기 쉬운 곳에 있어 신속한 출동에는 어려움이 있었다.⁸³⁾ 따라서 이항복은 위와 같이 殷栗의 廣巖梁과 長淵의 阿郎浦를 합쳐 백령진을 僉使鎮으로 만들 것을 건의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항복이 말하는 해적이란 ‘해랑적’을 일컫는 말이다. 이는 동시대에 백령도로 유배를 가서 이 섬의 역사와 풍속을 기록한 李大期的 『白翎島誌』에 자세히 나온다.

무릇 薪島·海浪島에서 나오는 水賊은 그 水勢와 뱃길로 인해 반드시 이 섬[백령·대청·소청]에서 모인다. 따라서 해적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이곳에 몰래 배를 대고 뿔나무와 식수를 구하여 순풍을 기다린 연후에 內洋으로 들어오고, 몰래 海西에서 출발하여 湖西와 湖南으로 들어간다. 이 때문에 이 섬은 우리나라 도착들의 문이 되었으니, 도착들을 막아내고 그들의 기세를 꺾어버리는 것이 이곳만큼 시급한 곳이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國初以來로 본 섬[백령도]을 변방으로 포기하여 해외의 인적이 불통하였고, 해적들의 소굴이 되었다. 이 때문에 關西·湖西·湖南 등 3로의 漕運이 매번 해적들에게 약탈

81) 『白沙別集』권2, 啓辭, 「白翎設鎮事宜啓」

82) 『세종실록』권152, 지리지, 황해도

83) 강석화, 「조선후기 황해도 연안 방위체제」, 『한국문화』38,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6, 377쪽.

당하게 되어 조정의 깊은 근심이 되었다. 이에 萬曆 戊申年(1608)에 聖上[광해군]께서 즉위하시고, 그 때 體察使 李恒福이 건의하여 鎮을 설치하였다.⁸⁴⁾

백령도의 군사적 중요성에 동감한 광해군은 백령진의 설치를 곧바로 승인하고, 1614년(광해군 6)에는 白翎僉使를 水軍節度使로 승격시킬 수 있는지 비변사에서 논의하도록 지시까지 하였다.⁸⁵⁾ 그러나 조정에서는 주민 부담이 커진다는 반론이 일어, 결국 白翎僉使와 所江僉使(웅진의 옛 관랑진)를 左右舟師大將으로 삼아 협동 단속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졌다.⁸⁶⁾

백령진이 설치되면서 일단 해랑적과 황당선의 출몰은 잦아들었다. 그러나 청의 康熙帝가 三藩의 난을 제압하고 臺灣을 통일한 후, 1684년 이른바 ‘展海令’을 반포하면서 실질적인 해금이 폐지되자 서해 해안에는 중국어선인 황당선이 다시 출몰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규모는 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규모의 집단이었다. 여기에 대해 백령진 등 조선의 수군진은 사실상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15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까지 약 130여 년간, 『실록』을 중심으로 서해 북부 해역에서 벌어진 ‘해랑도/해양도’ 문제와 ‘해랑적’의 활동, 그리고 조선정부의 대응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조선 후기 도성과 연해 주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해랑적의 실체는 적어도 16세기까지는 물범·사슴 등을 사냥하고 밀매하는 밀무역자에 불과하였

84) 『雪壑先生文集』권2, 雜著, 「白翎島誌」, “凡水賊之自薪島海浪島而出者、其水勢船路必湊於此三島。故海賊之入我國地方者、必潛泊於此、樵汲候風然後、得越入內洋、竊發於海西、而轉入於湖西及湖南、然則是島也爲我國賊入之門、闔而控扼折衝、莫此爲急。而自國初以來、本島拋荒、海外人跡不通、爲海賊窟穴。故關西湖西湖南等三路漕運、每爲此賊所掠、朝廷甚患之、乃於萬曆戊申我聖上臨御、而其時體察使李相恒福獻議設鎮。”

85) 『광해군일기』권78, 광해군 6년 5월 22일(계유)

86) 『광해군일기』권78, 광해군 6년 5월 30일(신사)

다. 즉, 『실록』을 분석해 보면 해랑도인이 해랑적으로 폭력화되어 가는 시기는 대략 임진왜란을 전후로 하는 때였다. 따라서 전기의 ‘해랑도인’은 流民의 문제요, 이들이 행하는 불법적인 밀무역의 문제였다. 그러나 후기의 ‘해랑적’은 점차 폭력화되어 마침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변란의 배후세력에 위치지어진다. 이들의 근거지인 해랑도의 위치 또한 전기에는 해양도만을 비정하고 있었으나, 후기에 가서는 압록강 하구의 薪島로부터 靑島반도와 산둥반도의 도서까지를 포괄하는 어느 특정한 섬으로 모호하게 비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랑도인’과 ‘해랑적’은 반드시 등치되는 용어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해랑도는 요동과 평안도, 제주도 등에서 들어온 유민들의 도피처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따라서 ‘海禁’을 표방하는 명과 조선은 이들에 대한 수토와 쇄환을 펼쳐야만 하였다. 그러나 요동 해안에 衛所를 설치하지 못할 정도로 요동에 대해 완전한 장악력을 갖추지 못한 명은 이들 도서 유민의 쇄환에 소극적이었다. 어쩔 수 없이 조선이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입장에서 해랑도 수토와 쇄환에 나섰으나, 이 역시 조공책봉 관계에 놓인 전통적인 중화체제 속에서는 한정되고, 제약적인 성과밖에 얻을 수 없었다. 결국 17세기 이후로는 해랑적과 황당선의 주요 출몰지인 海西 지역의 요해처에 水軍鎭을 설치하는 이른바 ‘海防’으로 정책적인 변환을 이룬다.

조선후기의 ‘海防政策’과 ‘設鎭論議’는 연해 도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관심 표명이라는 평가가 있다. 더 이상 섬이 육지와 떨어진 궁벽한 곳, 혹은 王化가 미치지 않는 국토의 邊地가 아니라 국가의 財富을 새롭게 창출하는 곳으로 인식의 전환을 이루었다는 것이다.⁸⁷⁾ 이러한 관점에서 18세기 한 유학자가 과감하게 해랑도의 設鎭을 주장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서쪽 바다의 雜嶼는 육지와 거리가 600~700리에 차지 않는데도 지나다니는 인적이 드물어 寶玉 綠玉, 丹砂, 驪珠, 犀角 등이 퇴적되어 있어도 수습하는 사람이 없다. 朝天者들이 기록한 것이 많은데, 해랑도는 중국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목책을 설치하여 鎭守하지도 않으니, 海中의 廢島인

87) 김정옥, 『조선후기 도서연구』, 해안, 2004, 177~179쪽.

것이다. 이미 우리와 가까운 薪島는 우리 管內와 마찬가지로 되었다. 이 섬[해랑도]의 大小는 알지 못하지만 중국과 우리나라의 도망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 사니, 이곳은 반드시 膏沃한 곳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漁探가 편리해서 죽히 살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하니 어찌 設鎮하여 撫摩하지 않겠는가? 濟州처럼 우리 관도에 들어왔어도 매년 刷還하는 수고는 중국도 더할 수 없는 번거로움일 것이다. 어리석고 이상하게도 울릉도를 포기한 사이에 倭가 시험해 보게 되어 다년간 서로 꾸짖다가 마침내 東萊總軍 安龍福이 切憤하여 바다로 들어가 倭와 爭辨하여 倭가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우리나라가 버려둔 땅은 자고로 이리하였다. 따라서 對馬島는 본래 신라에 속했으나, 그곳을 비워두게 되어 마침내 倭奴가 점거하게 되었다. 지금에 이르러 이는 우리 마음 속의 병이 되었으니, 한갓 후인들의 한을 일으킬 뿐이다.⁸⁸⁾

위의 글은 정조 때에 官察訪을 지낸 李箕元의 주장이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도망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니, 필히 해랑도는 기름진 땅이거나 漁探가 편리한 곳일 터이고, 따라서 해랑적 문제가 시끄러운 이 때에 아예 이곳을 차지하여 設鎮해버리자는 것이다. 한낱 촌부의 허황된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울릉도와 대마도를 포기한 사이에 일어난 사단들을 질책함에는 어떤 울림이 있는 것 같다.

88) 『五洲衍文長箋散稿』, 天地篇, 「海浪島磴磴磯辨證說」 “我東西洋雜嶼。距陸不滿六七百里。罕通人跡者。往往有綠玉、丹砂、驪珠、犀角之堆積。無人收拾。朝天者多記旌焉。海浪島不繫於中國。故無設寨鎮守。則乃海中廢島。而既近我薪島。則便同我之管內也。未知島之大小。而中我浦氓。冒死入居。是地必膏沃。不然則漁採甚便。足以爲生故也。然則何不設鎮撫摩。入我版圖如濟州。而每勞刷還。至煩中國也。愚嘗怪拋棄鬱陵島。間爲倭之嘗試。多年相詰。竟爲東萊總軍安龍福切憤下海。入倭爭辨。倭不敢復言。則我東之棄置域中地方者。自古如是。故對馬島本屬新羅而空置之。終爲倭奴所據。至今爲吾心腹之疾。徒起後人之恨而已也。”

참 고 문 헌

1. 사료

『朝鮮王朝實錄』, 『虛白亭文集』, 『默齋集』, 『白沙集』, 『雪壑先生文集』, 『順菴先生文集』, 『星湖僊說』, 『五洲衍文長箋散稿』, 『增補文獻備考』

2. 연구논저

강석화, 「조선후기 황해도 연안 방위체제」, 『한국문화』38,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6.

高橋公明, 「中世東亞亞海域에서의 海民과 交流—제주도를 중심으로」, 『탐라문화』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_____, 「十六世紀中期の荒唐船と朝鮮の對應」, 『前近代の日本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1995.

_____, 「海域世界の交流と境界人」, 『周縁から見た中世日本』, 講談社, 2001.

고성훈, 「조선후기 ‘海島起兵說’ 관련 변란의 추이와 성격」, 『조선시대사학보』3, 조선시대사학회, 1997.

구도영, 「16세기 조선의 압록강 하구 도서에 대한 영토인식과 외교전략」, 『역사와 현실』97, 한국역사연구회, 2015.

_____, 「16세기 조선 對明 불법무역의 확대와 그 의의」, 『한국사연구』170, 한국사연구회, 2015.

김경옥, 『조선후기 도서연구』, 해안, 2004.

김문기, 「19세기 조선과 청의 어업분쟁—1882년 ‘초청무역장정’ 체결 이전까지」, 『19세기 동북아 4개국의 도서분쟁과 해양경계』, 동북아역사재단, 2008.

藤田明良, 「海域史からみる朝鮮王朝の空島政策」, 『東京大學コリア・コロキウム講演記録』, 東京大學 大學院 人文社會系研究科 韓國朝鮮文化研究室, 2006.

모모키 시로 외(최연식 옮김), 『해역아시아사 연구 입문』, 민속원, 2012.

무라이 쇼스케(이영 옮김), 『중세 왜인의 세계』, 소화, 2003.

서인범, 「조선시대 서해 북단 해역의 경계와 島嶼 문제—海浪島와 薪島를 중심으로」, 『명청사연구』36, 명청사학회, 2011.

- _____, 「청 강희제의 開海政策과 조선 西海海域의 荒唐船」, 『이화사학연구』50,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2015.
- 손승철 외, 『중·근세 동아시아지역의 해륙 경계인식』, 경인문화사, 2013.
- _____, 『중·근세 동아시아지역의 해륙 경계분쟁』, 경인문화사, 2013.
- 유재춘 외, 『근세 동아시아와 요동』, 강원대학교출판부, 2011.
- 六反田豊, 「十五·十六世紀朝鮮의 ‘水賊’」, 『中近世의朝鮮半島と海域交流』, 汲古書院, 2013.
- 伊藤徹魯·藤田明良·久保金弥, 「朝鮮半島周辺海域の鰭脚類: 朝鮮の古文獻のニホンアシカとゴマフアザラシ」, 『野生物保護』Vol. 6-2, 野生物保護學會, 2001.
- 이영권, 『조선시대 해양유민의 사회사』, 한울, 2013.
- 임학성 외, 『역주 인천도서지역의 지지자료』,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10.
- 주강현, 『유토피아의 탄생』, 돌베개, 2012.

Abstract

Haerangjeok's (Pirates from Haerang Island) Activities in the North-western Coast and the Response of Joseon's Government

Ryu, Chang-Ho*

Haerangjeok (海浪賊) means pirates from Haerang Island (海浪島: Hailang Island), which is estimated to be Haiyang Island (海洋島), one of Changshan Islands (長山列島) in Changhai County (長海縣), Liaoning Province (遼寧省), China. For more than 300 years, between the late 15th and the early 19th century, they consciously had invaded the coastal area over Pyeongan, Hwanghae, Gyeonggi and Chungcheong Province. Nevertheless, it was not easy for Joseon's government to subjugate them, because their base was Haerang Island, China. They grew up to be the typical pirates in the west coast, and, in the 18th century, people fled for refuge when there was a rumor that they might appear.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朝鮮王朝實錄) includes sixty-seven articles about Haerang Island or Haerangjeok between 1487 and 1810. The context of Haerangjeok issue was not the identical each time. The problem was that it was getting more ambiguous about who Haerangjeok was. Sometimes, Haerangjeok was misunderstood as pirates

* Researcher, Inha University Museum.

(水賊) or unknown foreign ships (荒唐船), and, sometimes, it was listed with them. Moreover, since the 18th century, the issue was often exaggerated by groundless rumors.

As a matter of fact, Haerangjeok was just a group of smugglers who hunted and smuggled largha seals (phoca largha) and deers, at least until the 16th century. Also, Haerang Island was a shelter of refugees from Liaodong (遼東) area, Pyeongan Province, and Jeju Island. Ming and Joseon governments had to arrest them and send them to their home country according to “curfew for ships” (海禁) policy. The former was not strong enough to control Liaodong region, while the latter was not able to freely catch them under the system of Sinocentrism. As a result, since the 17th century, Joseon’s government had built navy forts for so-called “maritime defense” (海防), at the strategic points of Hwanghae Province, where Haerangjeok and unknown foreign ships often appeared.

Key Word : Hailang Island(海浪島), Haiyang Island(海洋島), Haerangjeok(海浪賊), Evacuation(搜討), Repatriation(刷還), The policy of maritime defense(海防政策), Backryeong-jin(白翎鎮)

교신 : 류창호 22212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박물관

(E-mail: woojin1406@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5. 12. 24.

심사완료일 2016. 02. 11.

게재확정일 2016. 02. 12.

화엄(華嚴)의 세계관을 차용한 제주문화공간 분석*

김치완**

- I. 머리말
- II. 변방(邊方), 제주
- III. 중심(中心), 제주
- IV. 공간(空間), 제주
- V. 맺음말

국문요약

공간의 개념과 그것들의 틀을 제공하는 세계관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늘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까닭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이쪽에서 저쪽까지라는 면(面)을 가지고 있는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생성하고 변화하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한편,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문화산업은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라는 용어를 감히 쓰기 어려운 정도로 고급스러운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제주를 그동안 홀대받던 ‘변방(邊方)’이라는 이미지를 오히려 차별화된 문화상품으로 내세울 수 있는转机(轉機)를 맞이했다고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글은 2015년 11월 26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주최로 제주에서 열린 ‘2015 동아시아 해양도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동아시아문화지도에서 제주 문화공간의 위치와 층위(層位, Layer): 화엄(華嚴)의 세계관을 차용한 “포개진 공간(multi-layered Space)” 試論」을 보태고 기운 것임을 밝혀둔다.

**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평가된다.

현실적으로 제주는 국내외적으로 ‘문화’가 절대 우위의 헤시태그(#)가 되면서 재발견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래서 변방의식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었던 ‘한반도 문화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고도(孤島)’는 ‘신자유주의 경쟁에 지친 현대인들이 위안을 받을 수 있는 힐링(healing)의 섬’으로 상징조작(象徵操作, image manipulation)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연구에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부각되는 ‘변방’이라는 제주의 현상적 층위를 검토하고, 그와는 반대로 로컬리티 담론을 비롯한 다양한 공간담론에서 요청되는 이른바 ‘중심인 로컬’이라는 제주의 본질적 위치가 가지는 층위, 그리고 그것이 현상적 위치와 갈등을 일으키는 공간을 다층적 공간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현상공간과 추상공간, 그리고 글로벌과 로컬 등으로 이항대립되는 공간 인식을 인식의 변화라는 인문학적 실천을 통해 평등하면서도 ‘두께’를 가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화엄의 세계관을 이용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 제주문화공간, 화엄의 세계관, 문화산업, 엔터테인먼트, 힐링(healing)의 섬, 상징조작(象徵操作).

I. 머리말

최근 공간이론의 경향이 “공간(space)을 이미 주어진 텅 빈 장소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 갈등하는 공간적 실천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선언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¹⁾는 점은 그다지 새롭지 않다. “공간은 텅 비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행위, 관계, 상호작용의 산물이지만 그러한 공간은 행위, 관계, 상호작용에 인과적 영향을 끼친다.”²⁾라는 설명도

1) 서영표, 「추상적 공간과 구체적 공간의 갈등: 제주의 공간이용과 공간구조의 변화」, 『공간과 사회』 제24권 1호(통권 47호), 한국공간환경학회, 6쪽.

‘생성과 변화의 장이면서 생성과 변화에 관여함으로써 실재한다.’라는 플라톤의 코라(κώρα)나 ‘사물이 존재하는 바깥 경계라는 존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토포스(τοπος)에 대한 설명과 대동소이하다.³⁾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제주의 공간으로 인지되고 체험되는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은 ‘언제나 이미’ 제주인들의 행위 또는 실천의 전제이지만(인과적 힘을 갖지만) 그 행위와 실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구성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엄청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추상적 공간이지만 우리 몸과 자연의 한계를 고려하지 못하여 저항을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이어서 더 구체적인 공간 제주에서 비동시대적인 것의 공존이라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⁴⁾라는 결론에 이르는 논리 구조도 오늘날 제주를 대상으로 하는 공감담론에서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낯익다.

2) 서영표, 위의 논문, 같은 쪽.

3) 줄고, 「섬[島]-공간의 철학적 접근: 플라톤과 노자의 ‘공간’ 개념 검토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45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4, 120~147쪽. 플라톤 이전의 서양철학에서 공간은 ‘생성과 존재가 펼쳐지는 場’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인도철학에서처럼 ‘있는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았다. 플라톤은 생성과 변화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 關與(μέθεξις)하고 ‘있는 것’인 공간을 ‘코라(κώρα)’라고 불렀다. 그런데 코라는 ‘존재’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實在함에도 불구하고 ‘있음직한 것’으로 규정되는 데 그쳤다. 공간이 ‘있는 것’이 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공간 개념인 ‘토포스(τοπος)’에 이르러서였다. 토포스는 어떤 사물이 존재하는 바깥에서 구획한 경계, 또는 “둘러싸는 외피에 의해 경계가 정해지는 빈 곳”이라는 설명을 통해 존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존재의 자리를 차지한 토포스는 흔히 생각하듯이 나란히 펼쳐져서 이곳과 저곳이 구획되어지는 면이 아니라, “작은 공간이 큰 공간 속에 들어 있는 식으로 서로 겹치거나 둘러싸”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있음직한 것’이긴 겹겹이 쌓인 형태로 있는 것이긴, 그도 아니라면 ‘비어-있는 것’이긴 공간을 정의하는 것은 녹록치 않다. 왜냐하면 우리말에서 공간을 가리킬 때 ‘비어(無)-있음(有)’이라고 하는 것도 말 그대로라면 ‘없음이 있다’는 의미론적 형용모순이다. 이러한 점을 직감했기 때문에 플라톤은 자신의 설명을 ‘庶出的 推論(λογισμῶ τιμι νόθῳ)’으로, 노자는 ‘말할 수 없는 것(不可致詰)’으로 표현했다. ‘서출적’이라든가,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등의 표현에는 ‘생소하고 익숙하지 못한(ἀτόπου καὶ ἀήθους)’ 것을 표현한다는 자각이 포함되어 있다.

4) 서영표, 위의 논문, 39~41쪽.

공간에 대한 형이상학적 논의는 동양과 서양, 고대와 근현대가 별 다르지 않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공간 담론은 공간이 ‘살아 움직이는 실천의 현장’이어야 한다는 데로 귀결된다. 그런데도 공간의 개념과 그것들의 틀을 제공하는 세계관에 대한 검토는 늘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공간에 대한 담론의 양만큼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겠지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이쪽에서 저쪽까지라는 면(面)을 가지고 있는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생성하고 변화하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선행 담론의 결론 이후에 그만큼 살아 움직여 변화한 공간에 대한 담론은 늘 새롭게 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⁵⁾ 이 연구에서 ‘문화공간’에 주목하고 있는 까닭도 오늘날의 공간담론이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삶의 흔적이 커켜이 쌓인 삶의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소비되는 상품, 또는 강제되고 조작된 복제 이미지로 취급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문화산업을 신성장동력, 차세대성장동력산업분야로 주목하고 있다. 한류(韓流)라고 불리는 그 무엇이 동아시아의 주목을 받을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동아시아의 주목을 받게 된 한국의 연예사업(entertainment)을 한류로 포장한 것에 불과한지는 따져보아야 할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문화산업이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라는 용어를 감히 쓸 수 없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정이 이런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5) 2013년과 2014년 동아시아 해양도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섬[島]-공간의 철학적 접근: 플라톤과 노자의 ‘공간’ 개념 검토를 중심으로」와 「추상적 공간과 구체적 공간의 갈등: 제주의 공간이용과 공간구조의 변화」는 철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제주라는 공간의 “현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론적 출발점을 찾으려는 시도”(서영표, 위의 논문, 40쪽)로 볼 수 있다. 「섬[島]-공간의 철학적 접근: 플라톤과 노자의 ‘공간’ 개념 검토를 중심으로」에서는 공간에 대한 그리스와 중국의 형이상학적 개념들을 동원하여 섬이 ‘아직 펼쳐지지 않은 육지’ 곧 아직 삶의 현장으로 온당하게 자리매김하지 못하였지만, 오늘날을 해양의 시대라고 한다면 그 실천적 행위를 통해 삶의 현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추상적 공간과 구체적 공간의 갈등: 제주의 공간이용과 공간구조의 변화」는 르페브르의 개념들을 이용해서 제주라는 공간의 희망은 그곳이 담론적 실천의 공간이 되는 지점에서 발견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중국에서도 최근 개최된 제18기 5중대회에서 문화산업을 향후 5년간 경제성장을 이끌 신성장동력으로 손꼽을 정도이다.⁶⁾ 이렇게 보면 ‘문화야말로 차세대 먹거리가 된다.’라는 주장은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에 통용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낮선 경관’을 콘텐츠로 한 관광산업과 감귤산업 외에는 이렇다 할 산업 기반을 갖추지 못한 제주가 그동안 홀대받던 ‘변방(邊方)’이라는 이미지를 차별화된 상품으로 내세울 수 있는 전기(轉機)를 맞이했다는 주장도 그럴 듯해 보인다.

실제로 오늘날 제주를 찾는 외국인관광객의 비중이 일본 중심에서 중국과 동아시아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여러 모로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단기 체류하던 내국인들이 모여 들던 것과는 달리 이른바 문화이주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삶의 공간도 상당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만큼 폭주하는 안팎의 요구에 따른 역기능도 상당 부분 노출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이제 제주라는 공간이 동아시아문화지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러한 제주 공간을 이루고 있는 겹겹의 층위(層位, Layer)⁷⁾를 분석하고 검토해볼 때가 되었다. 그리고 가령 지금의 상황이 안팎의 우려와는 달리 지역주민들에게는 물론 제주라는 공간을 소비하고 재생산하는 이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도 긍정적일 수 있다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좋은 때이기도 하다.

-
- 6) 박만원, 연규육, 「시진핑 정부가 키울 새 먹거리는…빅데이터·IOT·신에너지車·문화산업·中 GDP 50% 넘는 서비스산업…규제완화·대외개방 정책 펼دت」, 『매일경제』, 2015.10.26.기사(<http://news.mk.co.kr/newsRead.php?no=1018163&year=2015>).
- 7) ‘layer’의 사전적 의미는 ‘1.(하나의 표면이나 여러 표면 사이를 덮고 있는) 막[층/겹/커], 2.(시스템 등의 일부를 이루는) 층[단계]’이다. 이 연구에서는 특별히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여러 개의 소스 이미지를 사용할 때 각각의 소스들을 따로따로 관리하여서 서로 침범하거나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이미지 개체를 가리키는 레이어(layer)에 주목하고, 이것을 층위(層位)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실제 삶의 공간에서는 이미지 개체들이 이른바 합성된 형태이지만, 각각의 층위가 겹쳐져 쌓여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개념적으로 이 층위를 분리하여 검토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는 데 착안하였다.

이 연구는 이렇게 복잡한 현실상황 만큼이나 복잡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곧, 동아시아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했고, 그럴 수 있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할 때 제주가 섬이라고 하는 닫힌 공간이었으므로 그것을 잘 간직할 수 있었고, 이제야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럴 듯하게 상품화된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하는 복잡한 심경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화엄(華嚴)의 세계관을 차용한 것은 이 복잡한 심경을 해소할 개념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화엄종의 소의경전(所依經典)이기도 한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의 요체는 ‘중중무진(重重無盡)의 법계연기(法界緣起)’와 ‘현상과 본질의 대립을 해소하는 육상원융(六相圓融)’에 있다고 한다. 이 연구는 대립과 갈등 관계로 분절된 이항(二項) 개념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과 논리구조에서 벗어날 때 ‘삶의 현장으로서 제주문화공간이 재발견, 재인식, 재구축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 연구에서는 본래 제주적인 것이 무엇이고, 그것과 무관하게 이제부터 새롭게 소비될 형태로 재생산되는 제주를 되돌려 놓을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 그리고 탐라국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지난(至難)했던 이중소외의 역사를 구구절절이 되풀이하는 것으로 채울 생각도 없다.⁸⁾ 하지만 오늘날의 화두가 문화인만

8) ‘문화지도’, 특히 ‘동아시아문화지도’와 관련된 논의는 <김남희 외, 「아시아문화지도」의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제1집,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08, 123~146쪽>, <김상철 외, 「문화지도-지도를 매체(media)로 한 문화의 이해와 표현」, 『글로벌문화콘텐츠』 제1집,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08, 147~172쪽>, <김상현 외, 「아시아문화지도 문화분류체계와 기반기술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제1집,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08, 173~203쪽>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본문에서 詳述할 것이지만, 이 연구의 전제가 김상현의 「아시아문화지도 문화분류체계의 기반기술 연구」의 아래와 같은 내용임을 밝혀둔다. “‘문화지도’라는 틀을 통해 아시아 문화를 접근하고자 한다는 것은 이미 의미적으로 ‘아시아 문화는 이것과 저것과 또 가른 것들의 복잡한 조합이다’라는 시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시아 문화란 무엇이다’라고 한 마디로 규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이며, 아시아 문화를 하나의 일관되고 통일적인 전제로 파악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176쪽)

큼 인식의 변화야말로 접근 태도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제주 공간을 둘러싼 이항대립적 요소들을 해소시킬 방안을 화엄의 세계관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 연구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제주문화공간이 추구해야 할 삶의 공간으로서의 위치와 그 쉼터이 쌓인 층위(layer)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으며, 그 층위의 가장 바깥 면인 오늘날의 층위는 어떤 방향성을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원론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II. 변방(邊方), 제주

제주를 변방(邊方)으로 인식하게 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손꼽을 수 있겠지만, 중국 한(漢)·당대(唐代)에 한자, 불교, 유교, 율령 등이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등의 동아시아국가들에 전파됨으로써 제주가 포함된 동아시아에 이른바 중화주의(中華主義)에 바탕을 둔 한자문화권이 성립된 일을 가장 오래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손꼽을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중화주의를 “초기 문명 단계 이후 동아시아에서 가장 선진된 문명을 유지,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가장 강대한 정치조직을 배경으로 주변의 분산적이고 후진적인 제집단 위에 군림하기 시작한 … ‘中原’(黃河中, 下流域)에 위치한 … 왕조의 주인공들이 … 자신의 문화를 단순한 최고가 아닌 ‘유일한 문화’로, 자신의 왕조는 단순한 초강대국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국가와 민족을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유일한 보편적 통합 질서 그 자체로 주장한 것”⁹⁾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천명(天命)과 왕도(王道) 등과 같은 유가(儒家)의 고아한 형이상학적 개념도 동아시아의 고대에서 현대를 관통하는 보편적 이념이라기보다는 화이론(華夷論)이라고 하는 분열적이고 대립적 세계관에 입각한 지배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¹⁰⁾

9) 李成珪, 「中華思想과 民族主義」, 『철학』 37, 한국철학회, 1992, 31쪽.

10) 권중달은 「중심부의 논리: 중화사상-이춘식 『중화사상』(교보문고, 1998년) 서평」(『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제6호, 동아시아문화포럼, 2001, 237쪽)에서 『중화사상』의 저자 이춘식이 “중국의 제도와 정책은 모두 중화사상에 뿌리를 두고 만들어진

화이론(華夷論)은 세계의 중앙에 문명의 중심인 화(華)를 두고, 동서남북 사방(四方)에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서 문명화해야 할 숙명을 가진 변방(邊方) 이(夷)를 대치시켜 둔 세계관에서 비롯되었다. 이 세계는 천명을 받은 “천자의 일원적 지배하에 당위적으로 통합되는 공간”인 천하(天下)로 인식되며, 그 “안의 모든 영토와 주민은 ‘王者’에 귀속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천자의 지배(王化)는 곧 ‘유일한 문화’의 구현이었던 만큼 그것에의 편입 여부는 단순한 정치권력에 대한 참여 또는 복속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과 야만의 갈림길로 인식” 되었다. 그래서 “천자를 ‘華’ 후자를 ‘夷’로 구분하여 차별하는 이른바 華夷思想이 발전하였는데, 특히 ‘夷’가 王道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주로 그들의 거주지와 자질 면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공간적 개념 즉 ‘내외’ 또는 ‘中國’과 ‘四方’과 아울러 ‘人’과 ‘非人’의 개념이 결부”되었던 것이다.¹¹⁾

물론 이러한 중화사상은 “다른 민족과의 교섭과정에서 여러 차례 굴절될 수밖에 없었”고, “천하의 제왕은 제하족이어야만 한다는 사상이나, 중국이 가장 우수한 문화를 가졌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수준이 높다는 생각도 근세에 와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기 때문에, “외복(外服)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적들도 제하족이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납득했는가의 문제”가 해소되어야만 한다. 곧, “중화사상이 주변에 있던 다른 민족에 의해 어떻게 이해되었느냐 하는 문제가 동시에 논의되어야” 동아시아문화권 또는 한자문화권이라는 개념이 비로소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이다.¹²⁾ 이렇게 본다면 중화사상에 입각한 동아시아문화지도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 중심부가 독점하는 논리라기보다는 중심부를 인식하는 주변부의 논리를 포함하여야만 완성된다는

것이라고 이해한 것이다. 그리하여 저자는 ‘유학의 정치사상이야말로 바로 중화사사의 본질이었다고 할 수 있다’라는 말로 이 책의 맨 끝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중국과 그 왕을 원심(圓心)으로 하여 수많은 원을 그려 가면서 세계의 전부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중화사상을 보충하는 天下사상이라고 요약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유가철학 또는 유가의 정치철학은 중화사상과 같은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겠지만, 본문에서는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천명과 왕도 개념을 夏華族 중심의 문화지배논리로서의 천명과 왕도개념과 구분하였다.

11) 李成珪, 위의 논문, 32쪽.

12) 권중달, 앞의 글, 238~239쪽.

역설도 가능하다.

더구나 “漢民族의 우월적인 위치가 상실된 정도가 아니라 ‘中國’ 영토의 일부 또는 전체가 異民族(夷)에 의해 정복 통치되는 이른바 ‘정복왕조’의 시대(결코 짧지만도 않았던)에도 화이사상이 이민족 지배에 대한 저항의 논리 뿐 아니라 그 지배의 정당성을 보증한 논리로도 기능하였던 것”¹³⁾으로 미루어 보건대, 중화주의에 바탕을 둔 동아시아문화지도에서 중심부와 주변부의 위치는 현실적으로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가변적인 것이었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외교적 술어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런 합리적 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제주 공간의 인식 표층에서 “변방(邊方)”, “주변부(周邊部)”, “소외(疎外), 특히 이중소외”라는 개념이 유행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은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성립되고 그 후 오랜 시간 동안 유포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동아시아문화지도’, 곧 동아시아인들의 인식 속에서 탐라가 ‘동쪽 끝 변방의 남쪽 끝 변방’에 위치한 절해고도(絶海孤島)인 유배지(流配地)로 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곧 그것이 외교적 술어에 불과했다 하더라도 청나라 이전까지는 한 번도 국가명을 ‘중국(中國)’이라고 표기한 일이 없었던 하화족과 그들의 영토를 중심으로 한 문화지도¹⁴⁾에서 탐라 또는 제주를 표기가 생략되거나, 표기된다고 하더라도 동남쪽 변방에 점 하나로 표기되었던 것이다.¹⁵⁾

고대 독립해상왕국이었다는 탐라(耽羅)는 중국 사료에 ‘섭라(涉羅),

13) 李成珪, 위의 논문, 33쪽.

14) 李成珪는 「中華思想과 民族主義」(앞의 논문, 34-47쪽)에서 ‘중국’이란 개념은 (1)왕의 直轄地, (2)춘추시대 중국 내 夷狄國(吳·越·楚)에 대비되는 周 왕실과 동맹 세력, (3)禹貢九州와 일치하는 전국시대 7雄의 세력, (4)정치적 통합의 대상으로서 만주, 신강, 몽고, 티벳을 포함한 清朝의 전지배영역, (5)최고의 이상적인 문명이 구현된 공간으로서 禮敎문화가 구현된 영역 등 다층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15) 여기서 말하는 동아시아문화지도 상의 표기라는 것은 제주사람을 포함한 동아시아인들의 표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물론 그러한 표상은 실제 지도상의 표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고지도에 표기된 시기와 위치 등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동아시아인들의 표상을 검토하려는 데 목적을 둔 것이지, 그것을 동아시아문화지도로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탐모라(耽牟羅)’, ‘담라(儋羅)’, ‘탁라(毛羅)’ 등 다양한 명칭으로 표기되어왔다. 이 가운데서 당나라 때 이연수(李延壽)가 편찬한 『북사(北史)』에는 수(隋)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는 해상항로 상에 다음과 같이 탐라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탐라’라는 지명이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다음 해(608) 주상께서 문림랑(文林郎) 배세청(裒世淸)을 왜국에 사신으로 보내셨다. 백제(百濟)를 넘고 죽도(竹島)에 이르러 남쪽으로 탐라국(耽羅國)을 바라보며 도사마국(都斯麻國, 지금의 對馬島)을 거쳐 멀리 큰 바다로 들어갔다. 다시 동쪽으로 일지국(一支國, 지금의 一岐)에 이르렀다가 죽사국(竹斯國, 筑紫: 지금의 福岡 일대)에 이르렀고, 더 동쪽으로 가서 진왕국(秦王國)에 이르렀다. 그곳의 주민은 중국(華夏)과 같으며 이주(夷洲, 會稽郡 일대로 지금의 臺灣)라고 하는데, 의심스럽고 분명히 알 수 없다. 다시 10여 국을 거쳐 바닷가에 다다랐다. 죽사국부터 동쪽 [나라들]은 모두 왜에 부庸(附庸)한다.”¹⁶⁾

『삼국지(三國志)』에서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왕래가 한반도의 남해를 따라 항해하다가 오늘날 김해지역에서 대마도와 일지국을 거쳐 일본열도로 가는 해로를 이용한 것으로 나오는데, 『수서(隋書)』에서는 인용문처럼 백제(百濟)에서 죽도, 탐라국, 도사마국, 일지국, 일본열도 순서로 일단 백제 해안에서 출발하여 섬을 경유하는 항로를 이용한 것으로 나온다. 항로의 변경 덕분에 탐라가 중국 사료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항로상 경유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묘사는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고지도에서 탐라가 표기된 것은 이보다 훨씬 후대의 일로, 송대에 제작된 『화이도(華夷圖, 1136)』에조차도 예맥(濊貊), 삼한(三韓), 부상(扶桑), 왜국(倭國), 대막(大漠), 유구(流求) 등의 국명이 나오는 데 비해 탐라라는 명칭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는다. 이 지도는 당대(唐代) 최고의 지도학자인 가담(賈耽, 730~805)이 제작한 『해내화이도(海內華夷圖)』를 1136년에 개정하여 서안(西安) 비림(碑林)에서 석각(石刻)한 것으로 알려

16) 『北史』 권94, 列傳 82, 倭國: “明年上遣文林郎裒世淸使於倭國 度百濟 行至竹島 南望羅國 經都斯麻國 廻在大海中 又東至一支國 又至竹斯國 又東至秦王國 其人同於華夏 以爲夷洲 疑不能明也 又經十餘國 達於海岸 自竹斯國以東 皆附庸於倭.”

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표시된 초기 지도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현존하는 중국 지도 가운데 제주가 최초로 표시된 것은 원나라 때 제작된 『광륜강리도(廣輪疆理圖)』이다. 이 지도는 1360년 청준(淸濬)이 제작했다고 하는데, 원본은 전하지 않고 그것을 기초로 그린 수정 목판본이 『수동일기(水東日記)』에 남아 있다. 목판본으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생략된 부분이 많지만 한반도 남쪽에 제주도가 ‘탐라(耽羅)’라는 명칭으로 표시되어 있다. 원(元)나라에 이르러서야 탐라가 지도상에 등장하는 까닭은 당시에 원나라



[그림 2. 『광륜강리도(廣輪疆理圖)』
日本 大倉集古館 소장]

직할령인 탐라총관부(耽羅摠管府)가 설치되었기 때문이다.¹⁷⁾ 사실상 지도에 표기할 필요조차도 없었던 변방의 변방일 때는 인식의 범주 안에 포섭되지 않다가, 변방에 설치한 직할령이 되면서 인식의 범주 안에 ‘변방’으로서 포섭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원대의 지도에서부터 표시되기 시작한 탐라는 명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표시되었다. 하지만 대축척지도에서는 생략되었을 뿐 아니라 16세기의 대표적인 지도인 『대명국지도(大明國地圖; 일명 楊子器 跋輿地圖)』에도 빠져 있어서 모든 지도에서 탐라가 표시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1555년 제작된 『광여도(廣輿圖)』의 『조선도』에서는 ‘제주’라는 당시의 행정 명칭이 처음 등장하였고, 1602년에 제작된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 이후로 마르띠니(Martino Martini, 1614~1661)의 『신중국지도첩(1653)』을 비롯한 서양지도에서는 제주도가 ‘1.Fungma(鳳馬島, 豊馬島)’로 표시되었다. 이는 제주도가 원대 인식의 연장선상에

17) 오상학, 「중국 고지도에 표현된 제주도 인식의 변천」, 『문화역사지리』 제25권 제2호, 2013, 3~4쪽.

놓여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청대에 이르면 제주의 지도상 표시는 거의 실제와 비슷할 정도로 정교해졌다. 1718년의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에는 제주도가 한반도의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위도상 편차가 있으나 경도는 거의 실제와 일치한다. 『황여전람도』에 반영된 사실에 가까운 제주에 대한 인식은 19세기 위원(魏源, 1794~1856)의 『해국도지(海國圖志)』와 1845년에 제작된 서구식 세계지도인 『만국대지전도(萬國大地全圖, 湯景 판각)』에도 반영되었는데, 특히 1905년에 제작된 『대청제국전도(大清帝國全圖)』에는 제주가 섬지명인 ‘濟州島’라고 표기되어 있고 섬의 위치나 면적이 실제와 가깝게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제주도가 새롭게 주목받을만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역정보가 축적되고 다양한 지도가 제작되면서 점점 명료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한편 중국 고지도에서 제주의 위치가 중국과 한국, 일본 중 어느 쪽에 더 가깝게 표시되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특정 지도의 계보에 따라 생략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 주목해볼 여지가 있다. 제주가 오늘날 동아시아중해(東亞地中海)라고 불리기도 하는 동아시아 삼국의 해역에 있는 큰 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아시아인들의 인식 상에서 제주는 이렇다할만한 문화적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는 반대로 인간이 “지도”라는 매체를 통해 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¹⁹⁾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중국인의 지도에 제주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주가 중국인의 세계 인식에 포착되지 않는 미지의 세계, 곧 독립된 공간이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증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²⁰⁾ 이런 관점에 따르면 원나라에서 직할령을 설치하기 전까지 제주는 변방의 변방이 아니라 독립된 공간이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18) 오상학, 위의 논문, 12쪽.

19) 김상철 외, 앞의 논문, 154쪽.

20) 지도상 표기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변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중화주의적 관점에서 중국 고지도에 표기된 주변국은 종속국 취급을 받았던 것이라고 할 때 표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던 것이라는 역설이 성립될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 제주는 원대의 지도에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 고대국가들, 그리고 통일제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상의 독립을 유지한 상태였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제주에 변방의 충위가 덧씌워진 것은 성주(星主) 고봉례(高鳳禮, ?~1411)에 이르러서 성주(星主)와 왕자(王者)라는 직함을 버리고 좌도지관(左都知官)·우도지관(右道之官)으로 개칭하면서 실질적으로 천년왕국 탐라국(耽羅國, B.C.57~1402) 시대가 막을 내린 이후이다. 물론 오늘날 전하는 사료 가운데 제주가 독자적 중심으로서 얼마나 활발한 삶의 공간이었던지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구비전승 뿐이다. 이마저도 변방으로 포섭된 이후 내내 수많은 변형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변방의식, 소외의식, 패배의식을 근거 없는 것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1402년 이후로 국한한다면 제주는 오래도록 한반도 서남쪽 끝에 위치한 절해고도(絶海孤島)로서 대명률(大明律)의 삼천리 유배지에 해당하는 일급 유배지였을 뿐 아니라, 특히 중앙관리와 지방토호의 이중 수탈, 왜국의 빈번한 침입, 지나친 진상과 그에 따른 부역의 증대로 발생한 유민 발생 억제 정책인 출륙금지령(인조 7년; 1629. 8. 13.) 이후로는 외부와의 교류가 차단된 지도상의 점(點)에 불과했다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문화지도에서 변방의 위치로 편입된 이후, 오히려 제주 공간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교차하는 동아시아사적 사건의 무대가 되었고, 근현대에는 서양선교사들과 미군정(美軍政)까지 개입한 동서냉전의 최전선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단절되고 고립된 공간이었던 덕택에 산업화에 따른 사회, 문화구조의 변화에서 비껴나서 전통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국내의 관광객들과 문화 이주민들에게 집중 소비되는 이상현상을 겪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는 변방의 폐쇄성이 오히려 개방을 가속화할 뿐 아니라 그 과정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경험하고 있는데, 되짚어 말하면 ‘제주열풍’이라고 해도 좋을 현재의 상황은 더 이상 사용가치를 보유하지 못해서 시장에서 퇴출될 시기를 단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제주를 중심으로 한 충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므로,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

Ⅲ. 중심(中心), 제주

최근 5년 사이 제주는 그동안 변방이었던 설움을 한 번에 보상받는 듯한 이른바 ‘열풍’의 중심에 놓여 있다. 이 열풍을 가리키는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인 것으로 손꼽히는 것이 제주 인구의 폭발적 증가 현상이다.²¹⁾ 그런데 그 요인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항공교통편의 발달에 따른 접근성의 확대이다. 물론 2006년 제주항공이 저가항공사로 설립되어 운항을 시작한 이후,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부산항공 등의 저가항공사가 설립되면서 항공편 증가와 항공권 가격 하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주의 접근성이 확대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제주 접근성의 확대가 제주열풍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제주도 밖에서는 (1)제주를 육지와는 다른 섬으로 인식하지만 (2)접근성의 확대로 섬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1)인식이 (2)접근성보다도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상 (1)과 (2)는 별개의 요인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²²⁾

21) 이승록, 「제주인구 월1100명 증가 ‘핫플레이스’, 『제주의 소리』 2015.06.28.일자 기사(<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no=163900>). 기사에 따르면, 1987년 인구 50만명에서 2013년 6월 60만명으로 10만명이 증가하는 데 26년이 걸렸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 6월 발표된 통계청의 ‘2015년 5월 국내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5월 제주로 순이동한 인구는 1100여명(순이동률 0.18%)에 달하는데, 2014년 월 1000명 수준이던 것에서 월별 평균 100명씩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서울(-0.12%), 부산(-0.1%), 대구(-0.2%), 광주(-0.6%), 울산(-0.03%) 등 대도시에서 순유출이 일어나는 것과 다른 양상이다. 이렇게 순이동률이 높아진 것은 2010년을 기점으로 하는데, 2009년까지 1015명이 순유출되다가 2010년 437명이 순유입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제주 순이동 인구는 2011년 2243명, 2012년 4876명, 2013년 7823명, 2014년 1만 1112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증가추세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5년 뒤인 2020년 이전에 7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22) 양정필, 「근대 교통수단의 발달과 제주 ‘섬’ 인식의 변화», 『섬과 바다의 인문학 <인문도시지원사업> “인문주간” 학술대회논문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5, 79~93쪽. 여기서 양정필은 제주 열풍의 원인을 본문에 언급한 두 가지로 분석하면서 (2)를 (1)의 요인으로 주장하였다. 그리고 지난 해 귀촌가구(3만3442가

제주항공을 비롯한 저가항공사들이 설립되어 제주 항공편이 확대된 시점은 2006년 9월에 ‘카미노 데 산티아고(Camino de Santiago)’를 다녀온 서명숙씨에 의해 ‘제주 올레’ 1코스가 개장되어서 전국적으로 올레 열풍이 일어난 때와 일치한다. 그리고 이보다 한 해 앞선 2005년에는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되면서, 각종 국제회의와 정상 회담이 이루어지는 동아시아 외교 중심지이자 국제적 분쟁과 갈등을 예방, 해결하는 완충지대로 육성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항공교통편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제주유입인구가 증가된 것이 아니라, 제주유입인구가 증가하는 다양한 요인 때문에 항공교통편이 확대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이는 2009년에만 25~30만 명의 제주올레 탐방객이 다녀갔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²³⁾ 그리고 이 2009년이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금융위기로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0.3%에 그친 해라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제주 순이동률이 증가하기 시작한 2010년에는 6.3%로 반등했지만, 이후로는 2011년 3.7%, 2012년 2.3%, 2013년 3.0%, 2014년 3.4%로 2~3%를 유지하는 이른바 ‘한국식 장기불황’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표에 따르면, 2007년의 ‘제주올레열풍’과 2010년의 ‘제주이주열풍’은 한국식 장기불황과 그것에 대처하려는 정부의 정책,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요구가 맞물린 결과이다.²⁴⁾

구) 가운데 서울 근교인 경기(1만149가구, 30.3%)와 충북(4238가구, 12.7%)에 이어 제주도로 이동한 가구가 3568가구(19.7%)로 3위를 차지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1)의 결과가 (2)일 수도 있고, (1)과 무관한 제3의 요인 때문에 (2)가 발생하고, (2)의 결과로 (1)과 다른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1)을 그 결과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23) 졸고, 「카미노와 올레를 중심으로 본 문화콘텐츠로서의 길」, 『인문콘텐츠』 제30호, 2013, 49~65쪽. 여기서 2009년 통계치를 사용한 까닭은 이 해가 제주 순이동률이 증가한 2010년의 한 해 전이기 때문이다.

24) 이기석, 「『2013예산안』 5년차 MB정부 ‘균형재정회복’ 공언, 결국 ‘물거품」, 『뉴스핌』 2012.09.25. 기사(<http://newspim.com/anda/view.jsp?newsId=20120925000819>).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회복하자 외환위기의 아픈 기억이 있던 정부는 금융시장 변동성과 자본유출입을 완화할 목적으로 균형재정회복 정책을 펼쳤지만, 오히려 장기불황의 터널로 빠져들게 되었다.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창조경제’를 야심차게 내세워 이를 정면돌파하려고 했지만, 대내외적으로 경기회

돌이켜보면 이런 현상이 새삼스럽지만은 않다. 근대화 과정에서 제주 는 타자(他者)에 의해 소비되는 대상일 때만 중심의 위치를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1963년 ‘제주도건설연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시작된 제주 개발에 대한 논의는 이듬해인 1964년에는 ‘관광’을 기본 방향으로 한 ‘제주도 건설 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 관광에 초점을 맞춘 개발로 집중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는 국민 관광을 기반으로 국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표 아래 제주 개발이 추진되었는데, 1994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20년간 이어졌던 제주 개발의 문제점이 표출되면서 전도민적인 특별법 제정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때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은 중앙정부 또는 관(官) 주도의 하향식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추진, 외부 자본과 외재적 방법에 의존하는 개발 진행, 경제적 이익의 역외 유출, 도내 지역 간 불균형 발전, 관광 주도 개발에 따른 1차 산업 위축, 외지 자본의 제주도 내 토지 잠식과 투기 행태 증가, 위락시설과 상업적 개발에 따른 향락문화의 범람과 제주 사회 문화 환경의 파괴 등이었다. 요컨대 제주를 중심에 두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이다.²⁵⁾

복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제성장률을 낮게 설정하였고, 그 결과 2015년 현재는 2.6%로 낮춰 잡았다. 연합뉴스 2013.05.19.일자 기사 「한국 경제성장률, 15년만에 일본에 역전 전망(홍정규, 방현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16/0200000000AKR20130516208400002.HTML?input=1179.m>)」와 「한국 경제 가라앉고 일본 경제 떠오르나(홍정규, 방현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18/0200000000AKR20130518074500002.HTML?input=1179.m>)」 등에서 예견한 것처럼 아베노믹스를 내세운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역전하지는 않았으나 한국 경제는 차이나쇼크와 엔저·원고 등에 의해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編集部, 「韓国經濟急減速の眞實「強靱韓國」はどこへ行つたのか? - 向山英彦・日本總合研究所 上席主任研究員に聞く」, 『ダイヤモンド社のビジネス情報サイト』, 2015.04.23.일자 기사(<http://diamond.jp/articles/-/70569?page=4>)를 참조할 것.

- 25) 이영웅, 「제주도, 개발 광풍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섬을 꿈꾸다」, 『환경과 생명』, 2008년 겨울호(통권 58호), 2008, 140~141쪽. 1967년의 ‘제주도 특정 지역 건설 종합 계획조사’에 따른 국가 투자 사업으로의 격상을 거쳐 1970년의 ‘제주도 종합개발 10개년 계획’, 1973년의 ‘제주도 특정 지역 관광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오늘날에도 제주를 중심에 두었다는 점을 내세우는 지방정부의 정책은 제주를 삶의 공간이 아니라, 소비되는 공간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 예컨대 지난해 7월 1일 원희룡 제37대 제주도지사는 취임사에서 “제주가 지닌 사람과 문화, 자연의 가치를 제대로 키운다면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될 것”이라면서 “수많은 역경을 딛고 변방의 섬 작은 제주를, 세계의 보물로 만들어 온 도민 모두가 꿈을 현실로 만들어낼 주인공”이라고 강조했다.²⁶⁾ 이보다 앞선 6월에는 새도정준비위원회에서 “문화협치를 통한 도민문화시대”, “문화생태계 조성을 통한 ‘문화예술의 섬’ 구현”, “제주문화 정체성 확립을 통한 창조시대 발판 마련”, “문화예술로 풍요롭고 행복한 제주 창조”, “문화재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과 도시의 공존 모색”, “한류, K-Pop 등 공연사업육성을 통한 문화산업시대 진입” 등을 문화분야 도정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²⁷⁾ 이 과제들이 일 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지켜졌는지도 문제이지만,²⁸⁾ 과제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앞서 문제제기하였던 바와 같이 문화가 아닌 문화산업, 더 정확하게는 관광산업의 콘텐츠로서 문화, 상품화된 문화에 치중되어 있다.

이러한 우려는 학문적 탐구의 대상으로서 제주를 대하는 시각에서도 발견된다. 최근까지 지역학을 선도해온 제주학(濟州學)은 “제주도의 자연현상과 역사적 배경 및 사회문화적 특성들이 한국의 다른 어떤 지역과도 구별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여준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 전제가 가능한 까닭은 절해고도(絶海孤島), 곧 폐쇄된 섬이라는 제주의 지역

이 공항과 항만 확장, 도로와 통신시설 확충 등 관광 기반시설이 확충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개발로 이어졌다. 1985년에는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3개 관광단지 및 14개 관광지구 지정과 기본 개발 방향에 대한 구상이 제시되는 한편, 제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개발을 목표로 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 26) 강승남, “‘디 큰 제주, 세계 중심의 제주 만들겠다’”, 『제민일보』, 2014.07.01. 기사(<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791>) 참조.
- 27) 제이티뉴스, 「새도정준비위원회 123개 도정 정책과제 도출 내용」, 『제이티뉴스』, 2014.06.29. 기사(<http://www.jt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46034#>) 참조.
- 28) 이소진, 「예산·사업 확대…현장 체감은 ‘글썸’」, 『제민일보』, 2015.07.21. 기사(<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243>). 참조

적 특성 때문이다. 섬이라는 공통된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적 양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실제로도 다양한 접근이 있었다.²⁹⁾ 그런데도 이들 다양한 접근들이 시공간적인 배타적 차별성에 기대다보니, 오히려 섬이라는 전제만 부각되는 경우가 많았다.³⁰⁾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제주학은 1차적으로 제주라는 지역에 관한 학문이다. 연구 장소로는 ‘제주도에서 하는 학문’이라는 2차적 단계를 생각할 수 있다. 연구 주체에서 ‘제주 사람들이 하는 학문’이라는 3차 단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세 단계는 행복하게 일치할 수도 있고 어긋나기도 한다. ... 제주의 문화의 역사적 복합성과 다층성을 표상하는 이중구조에 대한 논의의 결론은 이상하게 지역특수성에 수렴되고 만다. 제주사람의 자기정체성을 논의하면 논의할수록 분리주의적 속성이 강화되어 그렇지 않아도 많지 않은 연구역량과 잠재적 연구자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역기능도 생길 지경이다.³¹⁾

제주라는 지역의 특수성, 곧 제주를 중심에 두면 그에 따른 소외의식이 강조된다는 인용문의 주장은 역설적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요즘 들어 글로벌과 로컬, 그리고 육지와 해양 담론공간에서 무게중심이 로컬과 해양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제주는 여전히 ‘독자성’이라는 자기암시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한 면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제주학 담론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탐라문화연구원의 연구동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분석해볼 수 있다. 탐라문화연구원에서는 2007년도 인문학지원사업에 응모하면서 ‘탐라문화의 정체성과 동아시아지중해 문화 네트워크-문화자원의 집적과 사회적 활용을 위한 토대 연구’를 아젠다로 내세움으로써 동아시아의 섬·해양·대륙문화의

29) 대표적인 주장들로는 제주도가 하나의 완결된 독자적인 문화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 한국문화의 옛형태를 간직하고 있다는 주장,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사회이면서 개방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 등을 들 수 있다.

30) 줄고, 「제주에서 철학하기 試論: 로컬리티 담론과 제주학 연구 현황 검토를 중심으로」, 『耽羅文化』 제39호, 2011, 177~213쪽.

31) 김성수, 「지역특권화와 문화 화석화를 넘어서-타자의 시선으로 본 제주학」, 『耽羅文化』 제3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13~15쪽.



[그림 3. 동아시아지중해문화교류지도]

네트워크가 신화·굿·제주어·해녀, 말[馬]이라는 주요요소를 가진 탐라문화를 중심으로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점을 강조하려고 동아시아지도를 거꾸로 뒤집은 이른바 「동아시아지중해문화교류지도」를 제안하였는데, 동아시아지도를 뒤집어 제주가 그 한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하는 이 사 고의 전환은 상당히 독창적이면서도 개방적이다. 그런데 (1)유럽문화의 출발점인 지중해를 패러디 또는 벤치마킹하였음에도 유럽문화

에 비견할 수 있는 동아시아문화의 보편적 차별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2)신화를 비롯한 탐라문화의 5개 요소가 동아시아지중해 문화의 중심요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의 논거가 제주를 기점으로 하여 권역내 북방문화와 남방문화가 교차하고 있다는 전제와 그 논거가 대부분이라는 점, (3)고립된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덕분에 한국문화의 원형 복원은 탐라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 등을 분석해보면, 표면적으로는 권역내 보편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차별성에서 출발하여 독자성으로 귀결되는 순환논증의 구조가 드러난다.³²⁾

32) 이후 탐라문화연구원의 중점연구소지원사업 및 인문학국지원사업 신청 주제들도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도 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서는 연구분야가 ‘인류학’으로, 과제명은 ‘음식문화의 탈근대적 패러다임 모색’으로 신청되었고, 2009년도 인문학국지원사업에서는 연구분야가 인문/어문, 사회/예술/체육, 자연/공학.의약학/농수해/복합학으로, 아젠다명은 ‘음식을 연구하여 21C 문명과 사람을 살린다-섬·제주·동아시아 음식문화 탐구’로 신청되었으며, 2010년도 인문학국지원사업에서는 소형, 해외지역연구분야로, ‘태평양: 미크로네시아 권역(마리아나제도, 캐롤라인제도, 마셜제도)+쿠로시오 권역(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대상권역으로, 연구과제명은 ‘태평양의 해양인문연구-미크로네시아·쿠로시오 권역에서 사람과 문명의 이동’으로 신청된 바 있다. 2011년도 학제간 융합연구지원사업에서는 2010년도까지의 신청내용을 바탕으로 한 ‘제주도와 쿠로시오해역의 해양

동아시아지도를 거꾸로 뒤집어 제주를 중심에 넣은 「동아지중해문화 교류지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제주가 동아지중해 또는 태평양시대를 열어젖히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는 낙관적 기대나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당위 때문이 아니다. 제주가 동아시아문화지도의 한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생략되었거나 점으로 표기되었지만, 그곳에서 살면서 역사의 공간으로 만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 결과 수많은 동아시아사적 사건들이 발생한 공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개략적으로만 언급하더라도 제주4·3과 대한민국정부수립, 일제 강점기의 해녀항쟁[1932], 신축교난(辛丑敎難, 1901)이라고 불리는 이재수의 난, 방성철의 난으로도 불리는 제주도농민항쟁[1898], 세 차례에 걸쳐 일어난 강제검의 난[1862], 출륙금지령(인조 7년; 1629)과 제주도 역모사건[1601], 조선의 개국[1392]과 실질적 복속[1406], 고려 복속[1294], 원 복속[1275]과 탐라총관부설치[1273] 등, 동아시아문화지도에 등장한 이래로 역사문화 공간으로서 제주는 한반도 국가의 흥망성쇠는 물론, 그것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동아시아 국가들과 근세에 동아시아를 침탈한 서양세력이 교직(交織)되는 ‘살아있는’ 공간이었다.

제주가 중심이라는 층위에서 제주는 동아시아의 중심의 패권을 차지하는 이념적 공간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층위는 해양으로 대륙으로 확대되는 ‘면(面)’을 가진다기보다는 개인적 삶과 공적(公的) 역사라는 ‘두께[積]’를 가진다. 그러나 정작 제주의 공간담론에서 이 두께에 주목하고, 그것이 강조된 적은 없다. 오히려 한 번도 중심이라는 층위에서 본격적으로 조망된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제주담론에서는 늘 면(面)이 전제된 타자적(他者的) 시각이 부각되었다. 그러다보니 제주를 중심으로 하는 층위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터전이 아니라, 그곳을 어떤 방식으로든 소비하려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춘 상품이 되어

융합연구’로 신청되었고, 2014년도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서는 ‘국문학, 한국현대사, 동양철학일반’의 학제간 연구로, ‘퇴살림의 인문학: 치유와 재생의 인문학적 공간과 상상력’이라는 연구과제로 신청된 바 있다. 사업계획서는 신청 단계에서 제안서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겠지만,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신청 아젠다를 보면 ‘탐라’는 있지만 ‘탐라의 정체성’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동아시아는 있지만 그것으로 묶을 수 있는 주제는 드러나지 않는다.

버린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제주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기호가 ‘차별성’을 중시하다보니 ‘독자적 중심성’을 강조할 수 있는 ‘섬[島]’, 로컬, 해양의 시뮬라크르(simulacre)가 무분별하게 복제되고 있을 뿐, 그 자체로 중심인 수많은 로컬들이 각각의 공간에 겹겹이 포개짐으로써 두께를 가지게 된 시간의 층위들이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 교차함으로써 완성되어간다는 문화지도의 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본래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IV. 공간(空間), 제주

제주의 공간이 새삼스럽게 ‘거기에 사람 사는 섬이 있었네!’라는 발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위(當爲)가 아닌 사실이다. 삶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말할 것 같으면 기원전 2337년 전에 기원을 두고 있고, 관계를 통한 인식범주에의 포섭이라는 점에서 말할 것 같으면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자처하던 중국지도에 등장하는 원대(元代) 이후에는 동아시아권역의 인식 범주에 이미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주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신비의 섬’,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로하는 힐링의 섬’, ‘미래첨단산업을 견인하는 문화산업의 원형콘텐츠가 풍부하게 매장된 보물섬’ 등으로 새삼스럽게 재발견되거나 개발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보존과 개발, 어느 쪽 입장에서든 제주의 공간을 그대로 두려고 하지 않는다.

오늘날 열풍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제주에 관심이 쏠리는 까닭은 낯선 자연경관 때문이기도 한데, 그 ‘낯설다’는 기표 이면에는 자연경관을 포함한 제주도가 ‘내버려졌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단절되어 있었다는 ‘변경’의 이미지가 여전하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후기 산업화 사회에서 낯선 경관과 문화를 가지게 된’ 제주를 두고 개발하려는 쪽은 물론 보존하려는 쪽에서마저도 ‘있는 그대로[自然]’ 두지 않고, 또 다른 극실재(極實在, Hyper-reality)를 양산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제주는 이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그곳을 이미지화하여 찾아든 사람들에게조차도 ‘낯선 공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곧, 오늘날 우리가 살

있고, 살고자 하는 제주는 동아시아 어디에도 없었고, 한 때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박제된 채로만 있으며, 앞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사실상 지금 이 순간에만 소비되는 복제품(simulacre)으로 있는 것에 불과하다. 요컨대 낯선 기표들과 복제품들 사이에서 실제 삶의 공간인 제주는 사실상 있는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다.³³⁾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삶의 현장으로서 동아시아의 보편성을 전제로 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갈 때 독자적 중심성이 확보된다.’라는 역설을 상기시켜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도 결국은 현실의 제주와는 동떨어진 이상에 불과한 것으로서, 또 다른 하나의 극실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물론 이런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제주 열풍이 불고 있는 것도, 이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증가된 이주민의 수만큼 복제품 제주가 늘고 있는 것도,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복제품 제주에 대한 문제의식이 늘고 있는 것도 오늘날 제주의 현실이고, 그런 점에서 그것이 실재하는 제주 공간이라고 할 수 있기는 하다. 곧, “전통-근대-탈근대라는 비동시대적인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제주는 이러한 차이의 공간을 찾으려는 원초적인 몸짓과 웅얼거림으로 가득 차 있다.”³⁴⁾라는

33) 이윤정, 「제주 이주 경험담 ‘제주, 살아보니 어때’ 출간한 홍창욱씨 ‘섬살이는 로망과 냉혹한 현실 공존」, 『경향신문』 2015.11.04.기사(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042122475&code=100100). 이 기사에는 2009년 11월에 제주로 이주한 이른바 문화이주민인 홍창욱씨가 제주에 정착하면서 제주도 주민과 이주민을 만나며 인터뷰한 내용을 출간한 도서를 소개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홍씨는 ‘박범준씨가 제주살이는 <자발적 유배>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며 ‘제주도 이주민이 많아지면서 지역주민과 섞이지 못하는 문제, 비싸지는 집값, 고정 수입을 얻기 힘든 점 등 다양한 문제들을 겪어냈다’고 했다.”라는 내용이다. 제주도 이주민이 많아지면서 파생된 다양한 문제들을 제주도에서 먼저 이주하여 정착한 이의 관점에서 정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 토박이의 관점에서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제주 이주민들이 제주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이미지화한 제주의 사뭇라크르를 내세워 오히려 제주 토박이들을 가르치려든다는 것이다. 제주도 토박이들의 피해 의식일 수도 있겠지만, ‘지역주민과 섞이지 못하는 문제’라고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과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4) 서영표, 앞의 논문, 40쪽.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제주의 실재와 복제가 차이점을 가진다는 문제의식, 그리고 그 차이점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제주의 공간 자체가 ‘비동시대적인 것의 공존’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둘 수 있다고 할 때, 그러한 담론의 핵심은 ‘포개진 공간’, ‘살아있는 공간’, ‘공존’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불교 화엄학의 ‘법계연기(法界緣起), 법성원융(法性圓融)’이라는 세계관은 오늘날 제주의 공간 담론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을 소의경전(所依經典)으로 하는 화엄종에서는 “상대적 세계관을 절대적 세계관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세계관적 갈등을 해소하여 무한·보편·평등한 세계관을 갖게 하는”³⁵⁾ 무진법계(無盡法界)의 상즉원융관(相卽圓融觀)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인도철학에서 법(法)에 해당하는 개념 ‘dharma’는 현상(現象)과 본질(本質), 권력(權力)과 진리(眞理)라는 의미를 포괄한다. 그러므로 법계(法界, Dharma-dhātu)란 ‘진리의 영역’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현상 세계’를 가리키기도 한다. 인도철학은 그 자체가 철학과 종교를 구분하지 않고, 인생의 네 가지 목표 가운데 법(法, dharma), 부(富, artha), 애(愛, kama) 등세 가지가 현실적 가치일 정도도 현실 중심적이다. 따라서 인생의 목표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기도 하는 법(法, dharma)이 현실적 권력 또는 의무 어느 쪽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힌두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힌두교를 비판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불교에서는 존재 일체를 괴로움[苦]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현상 세계와 진리의 영역이 동시에 법계(法界)라는 용어로 지칭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 이 문제를 화엄종(華嚴宗)에서는 유심론적이기는 하지만 (1)법계연기(法界緣起)와 (2)법성원융(法性圓融)의 논리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다.³⁶⁾

35) 남상호, 「화엄종의 相卽圓融의 방법」, 『陽明學』 제25호, 한국양명학회, 2010, 303쪽.

36) 불교에서 ‘법계’라는 개념은 六根(眼耳鼻舌身意 등 여섯 감각기관), 六塵(色聲香味觸法), 六識(眼耳鼻舌身意 등 육근이 육경을 인식하는 것)의 十八界 가운데 意根의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모든 사물을 가리킨다. 화엄종에서 말하는 법계는 『화엄경』의 「여래상해품」과 「입법계품」에서 사용된 개념인데 법장 이후로 眞如 또는 일체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남상호, 앞의 논문, 311쪽>을 참조할 것.

화엄종의 법계연기설은 화엄종 제2조인 지엄(智儼, 602~668)과 그의 제자 제3조 법장(法藏, 643~712)에 의해서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의 세계관과 진리관을 나타내는 핵심용어가 되었다. 물론 제1조인 두순(杜順, 557~640)의 세계관인 삼중관(三重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상과 이상의 개념인 사(事)와 리(理)의 개념이 결부된 것이다. 곧, 제4조 징관(澄觀, 738~839)에 이르러서는 법계연기설과 법성원용문을 대입한 사법계(四法界)의 화엄 세계관이 구축되었고, 제5조인 종밀(宗密, 780~841)에 이르러서 사종법계설(四種法界說)이 정리되었다. 이 사종법계설로 대표되는 법계연기의 세계관은 (1)현상세계는 상호 연쇄적 요인에 의해서 펼쳐진 것[法界緣起, 重重無盡]이고, (2)본래 가진 바를 가지고 각자의 영역을 지키면서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것[法性圓融, 無二相]이라고 파악한다.³⁷⁾

(1)현상세계가 상호 연쇄적 요인에 의해서 펼쳐진 것이라는 법계연기를 이해하려면 우선 사법계(事法界), 이법계(理法界), 이사무애법계(理事無礙法界), 사사무애법계(事事無礙法界) 등의 사종법계(四種法界) 개념을 알아야만 한다. 우선 사법계(事法界)는 차별적인 현상계를 가리키는데, 제5조 종밀의 해설에 따르면 사(事)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삼중(三重)이라고 할 때는 생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법계(理法界)는 차별을 넘어 있는 진리의 경계, 즉 모든 법(法)의 차별을 일관하여 존재하는 체성(體性)으로서 본체평등계(本體平等界)를 가리킨다. 이사무애법계(理事無礙法界)는 현상계인 사법계(事法界)와 실체계인 이법계가 일체불이(一切不二)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가리킨다. 사사무애법계(事事無礙法界)는 현상계의 일체 사물들이 서로 걸림 없이 중중무진(重重無盡)하게 서로 융합[相融]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상호 연쇄적 요인에 의해 펼쳐지는 세계이다.³⁸⁾

우리는 흔히 진리의 세계, 본질적인 세계는 현상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징관은 사종법계 가운데 이법계에 해당하는 두순의 진공

37) 徐海基, 「징관의 화엄법계관-법계 이해의 세 가지 유형」,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논문집』 제10집, 중앙승가대학교, 2003, 235~237쪽.

38) 남상호, 앞의 논문, 311~312쪽.

관(眞空觀)에 대해서 ‘진공(眞空)은 단멸(斷滅)의 공(空)이 아니고, 색(色)을 떠난 공도 아니다.’라고 주석했다. 곧 진리의 세계는 현실 세계를 불완전한 것으로 생각하여 현상적 요소를 없앤 것도, 현실세계를 떠난 것도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현상은 진리를 실현해내는 것이므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본질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현상의 본질을 두고 진리의 세계라고 말한다는 논리이다. 같은 맥락에서 두순의 이사무애관(理事無礙觀)에 대해서는 진리와 현상이 상호의존적 관계이기 때문에 걸림이 없다는 것으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사사무에법계에 해당하는 두순의 주편함용관(周徧含容觀)에 대해서는 현상은 각각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진리는 보편적인 것이므로 장애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진리로서 현상을 융합시키면 모든 현상사물은 진리처럼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³⁹⁾

사중법계의 구조로 본 오늘날 제주의 현실 공간은 사법계로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현실 공간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 공간은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이들, 곧 토박이건 이주민이건 각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공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상을 배제한 순수한 현실 공간을 건어내어 따로 떼놓을 수는 없다.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현실에 기초하지 않고, 현실화될 수 없는 이상 공간은 있을 수 없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졌거나 현실을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사무에법계(理事無礙法界) 또는 이사무애관(理事無礙觀)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이주민과 토박이가 생활하고 있는 제주의 현실 공간은 서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차이 때문에 장애가 발생한다기보다는 각자의 특수성을 오히려 보편성 속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곧, 현상 공간이 그 본질적인 면에서는 보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상 공간으로 수용되는 것이다.

‘이상 공간이 현상 공간에서 비롯된 것이고, 현상 공간이 본질적으로

39) 남상호, 위의 논문, 같은 쪽.

갖추어진 보편성을 복원함으로써 이상 공간에 수용된다'는 논리는 모든 것이 상호 연쇄적 관계에 놓여 있다는 세계관을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제이다. 화엄종에서는 이것을 열 가지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십현문(十玄門)이라고 한다. 십현문은 현상 공간인 사사무에법계의 형태를 불교의 전통적인 10개의 공간 형식[十方; 東西南北, 間方, 上下]을 빌려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화엄종 제4조 징관은 이 십현문을 큰 바다를 이루는 것은 수많은 시냇물이라는 것, 조그만 거울 속에서 천 리를 볼 수 있는 것, 방 안에 있는 천 개의 등불이 빛을 서로 교차하고 있는 것, 금과 금색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은 것, 조각달이 맑은 하늘에 있음에도 어둡고 밝은 차이가 있는 것, 유리병에 겨자씨를 많이 담은 것, 두 개의 거울이 서로 번갈아가며 무한히 비추는 것, 비유가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는 비유되는 것, 하룻밤의 꿈이 백 년 동안 생생할 수 있는 것, 북극성이 있는 곳을 모든 별이 떠받드는 것 등으로 설명했다.⁴⁰⁾

십현문은 모든 현상이 현실적으로는 차이를 가지지만 본질적으로는 세계를 구성하는 보편성을 갖추고 있어서, 이 세계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가 된다는 것을 열 개의 구체적인 사례로 예시한 것이다. 그래서 십현연기(十玄緣起)라고도 하는데, 특히 현상이 그 본질과 서로 대립관계가 아니라 융합하는 관계로서 장애가 없다는 것, 그리고 개개의 현상들의 상호 관계도 서로 대립관계가 아니라 융합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상즉상입(相即相入), 또는 상즉상용(相即相容)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중중무진(重重無盡)이라는 말에서 확인되듯이 하나의 현상, 국면, 층위에서 융합되는 것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앞선 층위에서의 상즉상입이 다음 번 층위의 상즉상입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 현상, 국면, 층위가 되는 식으로 끊임없이 포개져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십현연기의 논리는 이상과 현실이 서로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상즉상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사사무에법계(事事無碍法界), 곧 현상 세계의 각 현상들 사이에서의 장애 없음을 설명하는 논리

40) 남상호, 위의 논문, 314~316쪽. 4조 징관의 설명은 순서대로 同時具足相應門, 廣狹自在無碍門, 一多相容不同門, 諸法相即自在門, 秘密隱顯俱成門, 微細相容安立門, 因陀羅網境界門, 託事顯法生解門, 十世隔法異成門, 主伴圓明具德門에 해당한다.

이기도 하다. 이렇게 본다면 ‘본래 가진 바를 가지고 각자의 영역을 지키면서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것’이라는 범성원융(法性圓融)의 무이상(無二相)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화엄종에서는 법계연기론의 원융(圓融)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육상원융(六相圓融)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육상(六相)은 총상(總相, 만유의 보편상), 별상(別相, 만유의 개별상), 동상(同相, 만유의 동일상), 이상(異相, 만유의 차별상), 성상(成相, 만유의 통일상), 괴상(壞相, 만유의 독립상)을 가리키는데 세친(世親)이 『십지경론(十地經論)』에서 보살행을 말할 때 사용한 개념이다. 이 개념을 지엄에 이어, 법장과 징관이 법계연기론의 원융(圓融)을 설명하는 논리로 완성한 것인데, 객관세계와 주관세계의 세계관이 다양한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사이의 관계나 작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¹⁾

앞서 살펴보았듯이 법계연기와 십현연기의 논리는 어떤 특정 현실 공간과 이상 공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한정하여 말할 수 있다. 제주의 공간으로 말한다면 제주의 현실 공간과 이상 공간의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현실 공간과 이상 공간을 별개의 것으로 보는 제한된 인식 때문이므로, 이상 공간이 구현된 것이 현실 공간이고 현실 공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이상 공간이라는 점을 깨우치면 그 차이가 해소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육상원융은 현실의 수많은 차별적 공간들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와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의 공간으로 말한다면 동아시아문화지도에서 주변부였던 제주가 중심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동아시아의 보편, 동일, 통일을 전제로 하여 제주 공간의 개별, 차별, 독립상을 확보하는 것이 장애 없는 원융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라는

41) 남상호, 위의 논문, 316~317쪽. 남상호는 육상에 대해서 總相은 ‘만유는 하나의 體’, 別相은 ‘만유의 차별적 각부분’, 同相은 ‘각 부분의 상호통일적 조화’, 異相은 ‘각 부분의 자기 정체성’, 成相은 ‘각 부분간의 통일체적 관계형성’, 壞相은 ‘각 부분이 일체적 관계를 가졌어도 자기 정체성을 유지’ 등으로 부기하여 설명하였다. 주의를 기울인 흔적이 역력한 내용이지만, 총상과 별상, 동상과 이상, 별상과 괴상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전체와 부분, 동질성과 차이성, 통합성과 독자성으로 對句를 이루고 있는 점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 본문에서는 수정 인용하였다.

말이 된다. 이렇게 보면 육상원융은 세계의 체계와 그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다.

화엄종의 제3조 법장은 『화엄오교장(華嚴五教章)』에서 육상을 건물과 건물의 부분들을 이용하여 설명한 바 있다. 먼저, 총상은 건물, 별상은 서까래에 비유할 수 있다. 전체가 전체일 수 있기 위해서 부분은 전체를 형성하는 데 총체적 힘을 발휘하여야 한다. 총체적 힘을 지닌다는 것은 전체 건물을 지탱하는 힘이다. 반면에 부분적 힘이라는 것은 서까래의 힘을 말한다. 다음으로, 동상은 서까래와 기둥, 그리고 기와 등의 부분들이 건물을 이루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이상은 서까래와 기둥, 그리고 기와 등이 다른 것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상은 서까래와 기둥, 기와 등이 모여서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괴상은 서까래와 기둥, 기와 등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전체에 함몰되어버리지 않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⁴²⁾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1)현상세계는 상호 연쇄적 요인에 의해서 펼쳐진 것[法界緣起, 重重無盡]이고, (2)본래 가진 바를 가지고 각자의 영역을 지키면서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것[法性圓融, 無二相]이라는 법계연기는 (1), (2)조차도 결과적으로 하나로 융합시키는 논리라고 하는데 그 특징점이 있다. 이 논리는 부분인 하나가 전체를 이루는 개별자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독립성 때문에 전체를 이루는 통일성이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로 독립성을 가진 부분이라 하더라도 보편자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통일성 때문에 부분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이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1-(1)제주의 실제 공간과 복제된 극실재 공간, 도민의 생활 공간과 이주민의 이상 공간, 그리고 이 모두

42) 전영숙, 「화엄사상의 가족치료적 함의」, 『철학논총』 제50집, 새한철학회, 2007, 388~389쪽. 전영숙은 화엄법계연기사상이 가족치료의 체계론적 관점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화엄의 보살정신과 선지식이 가족치료적 함의를 지닌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장의 육상원융론을 가족과 가족구성원이라는 점에서 비교분석한 바 있다.

를 포괄하는 제주의 시간적 층위가 상호요인이 되어서 펼쳐지는 것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작용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1-(2)제주 공간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공간이 제주라는 공동된 공간을 이루고 있는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어 실현시킬 때 각각의 공간이 현실적으로 드러내는 차이와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논리를 동아시아문화지도로 확장하면 2-(1)동아시아 문화의 로컬과 글로벌, 주변과 중심이라는 문화적 위치와 그러한 시간의 두께를 포함한 층위들도 상호 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금도 지속 중이며, 2-(2)이미 전개된 공간의 시간적 두께를 가지고 현재 전개되고 있는 공간의 층위를 펼쳐낼 때 제주문화공간의 실체가 구현되고 제주문화공간의 자체적 중심성과 차별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V. 맺음말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문화’가 절대 우위의 헤시태그(#)가 되면서, 변방으로 소외받던 제주의 역사문화도 지금까지와는 전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다. 예컨대 1980년대 지역학을 이끌던 제주학 연구자들이 이중소외의 역사를 가진 제주가 변방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방안으로 제시했던 ‘한반도 문화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고도(孤島)’라는 상징에 현대 문화산업의 다양한 이미지가 덧입혀졌다. 그래서 오늘날 제주, 제주 섬, 제주 섬을 둘러싼 해양 세계, 곧 동아시아문화지도에서 제주 공간은 상징조작(象徵操作, image manipulation), 또는 극실재(極實在, Hyper-reality)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재해석되고 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문화지도에서 아예 생략되거나 점으로 표기되었던 것에 비해, 제주 열풍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낙관할 수만은 없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문화이주민들이 급증하게끔 한 이미지인 ‘신자유주의 경쟁에 지친 현대인들이 위안을 받을 수 있는 힐링(healing)의 섬’이

라는 것이다. 예전에 비해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었지만, 육지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입인구가 늘어날수록 더 치열한 경쟁 양상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은 현재 제주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서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힐링의 섬’이라는 이미지로 제주가 지금 급격하게 소비될 수 있는 까닭은 과거의 폐쇄성 때문이지만, 급격히 개방 소비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제주는 이제 ‘힐링의 섬’이라는 이미지로 소비될 수 있는 자원을 고갈하여 종언을 고할 시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제주에 이주하는 문화이주민들의 의식수준과 그에 따른 이주지 제주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한 데 비해, 현실의 공간 제주는 그렇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 가운데 하나이다. 물론 어느 지역이나 새롭게 이주해 들어오는 이주민들과 토착민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경쟁 논리’라는 생존 문제를 두고 갈등하고 있는 이들을 부추기는 제주의 이른바 ‘시물라크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문제이다. 곧, 이주민들이 상상하는 제주와 실제 직면하는 제주의 상(像)은 상당한 간극이 있는데, 이 간극의 책임을 어느 쪽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갈등 양상이 펼쳐진다. 도민(島民)이 제주 문화를 잘 보존하고 선양(宣揚)하지 못하고 있다고 탓하거나, 반대로 이주민이 제주 문화를 잘 알지 못하면서 가르치려 든다고 비판하여서 도민 대 이주민의 문화 갈등 양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여 제주문화공간이 과거 동아시아문화지도에서 차지했던 위치와 오늘날 이상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위치를 검토해보았다. 제주는 화이론적(華夷論的) 세계관에 기초한 동아시아문화지도에서 원대(元代) 이전까지는 생략되었고, 이후로는 한 개의 점 정도로 표기된 주변이었다. 그러므로 제주가 변방 또는 변방의 변방이라고 하는 주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이론적 세계관에서는 당연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동아시아문화지도에서 변방의 위치로 편입된 이후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 또는 서양세력까지도 개입된 세계사적 의미를 가진 공간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변방의 폐쇄성이 오히려 개방을 가속화하면서 그 과정을 단축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점을 경험하고 있다. 곧, 제주 공간은 동아시아

문화지도의 변방이라 하더라도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적 흐름 속에서 각각의 층위가 포개진 두께를 가진 공간이라는 중심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은 변방과 중심, 폐쇄성과 개방성이라는 이항 대립적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서 생겨난다는 것이 이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다음으로, 제주가 주변이면서 두께를 가진 중심 공간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할 때 제주 공간이 겪고 있고, 앞으로 더 격렬하게 겪게 될 수도 있는 문화적 차이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화엄종의 법계연기(法界緣起)와 법성원융(法性圓融)이라는 세계관이 현실 공간과 이상 공간의 차이, 공간의 중심성과 주변성을 해소할 수 있는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였다. 법계연기는 현상세계가 상호 연쇄적 요인에 의해서 펼쳐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법성원융은 개별 현상이 본래의 독자성을 지키면서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보편적 세계, 곧 중심이라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현실 세계의 문제점이 해결된 세계가 진리의 세계라고 생각해서, 그것은 현실 세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계연기의 세계관에 따르면, 현실 세계에 구현되지 않는 진리의 세계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은 이미 진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육상원융의 논리구조에 따르면 하나의 공간에서 두께를 이루고 있는 층위 각각은 그 공간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해당 층위에서 독자성의 의미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 각각이 또한 그 전체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제주에 전통-근대-탈근대라는 비동시대적인 것이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차이의 공간을 찾으려는 원초적인 몸짓과 웅얼거림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선행연구의 희망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반대편에서 ‘문화(文化)’가 아닌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사업’의 상품으로 대상화되어 소비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도출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희망해도 좋을 이유를 동아시아 문화지도에서 제주문화공간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러한 제주문화공간의 겹겹이 포개진 층위를 화엄의 세계관과 비교하였다. 그렇게 해서 도달한 귀결은 일(一)과 다(多), 다자(多者)와 과거·현재·미래가 동시적·내재적으로 관계한다는 화엄의 법계연기와 법상원융의 체계적 구조가 수

많은 층위로 두께를 가진 제주 실제 공간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고, 육상 원형에서 확인되듯이 현재의 층위에서 제주의 위치를 중심으로 옮겨 오는 것이 제주의 주변성을 극복하는 방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주 공간의 두께에 천착하는 것이 중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제주의 문화공간은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서 ‘살아 있는 공간’이며, 희망해도 좋을 터전이라는 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및 논문

- 권중달, 「중심부의 논리: 중화사상-이춘식 『중화사상』(교보문고, 1998년) 서평,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제6호, 동아시아문화포럼, 2001, 233~240쪽.
- 김남희 외, 「<아시아문화지도>의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제1집,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08, 123~146쪽.
- 김상철 외, 「문화지도-지도를 매체(media)로 한 문화의 이해와 표현, 『글로벌문화콘텐츠』 제1집,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08, 147~172쪽.
- 김상헌 외, 「아시아문화지도 문화분류체계와 기반기술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제1집,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08, 173~203쪽.
- 김성수, 「지역특권화와 문화 화석화를 넘어서-타자의 시선으로 본 제주학, 『耽羅文化』 제3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쪽.
- 김치완, 「섬[島]-공간의 철학적 접근: 플라톤과 노자의 ‘공간’ 개념 검토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4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4, 120~147쪽.
- _____, 「제주에서 철학하기 試論: 로컬리티 담론과 제주학 연구 현황 검토를 중심으로, 『耽羅文化』 제39호, 2011, 177~213쪽.
- _____, 「카미노와 올레를 중심으로 본 문화콘텐츠로서의 길, 『인문콘텐츠』 제30호, 2013, 49~65쪽.
- 남상호, 「화엄종의 相即圓融의 방법, 『陽明學』 제25호, 한국양명학회, 2010, 301~328쪽.
- 李成珪, 「中華思想과 民族主義, 『철학』 37, 한국철학회, 1992, 31~67쪽.
- 서영표, 「추상적 공간과 구체적 공간의 갈등: 제주의 공간이용과 공간구조의 변화, 『공간과 사회』 제24권 1호(통권 47호), 한국공간환경학회, 5~45쪽.
- 徐海基, 「징관의 화엄법계관-법계 이해의 세 가지 유형,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논문집』 제10집, 중앙승가대학교, 2003, 235~237쪽.
- 양정필, 「근대 교통수단의 발달과 제주 ‘섬’ 인식의 변화, 『섬과 바다의 인문학 (<인문도시지원사업> “인문주간” 학술대회논문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5, 79~93쪽.
- 오상학, 「중국 고지도에 표현된 제주도 인식의 변천, 『문화역사지리』 제25권 제

2호, 2013, 1~14쪽.

이영웅, 「제주도, 개발 광풍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섬을 꿈꾸다」, 『환경과 생명』, 2008년 겨울호(통권 58호), 2008, 138~151쪽.

전영숙, 「화엄사상의 가족치료적 함의」, 『철학논총』 제50집, 새한철학회, 2007, 383~408쪽.

기사 및 온라인 자료

다이아몬드·온라인編集部, 「韓國經濟急減速の眞實「強い韓國」はどこへ行ったのか?-向山英彦・日本総合研究所上席主任研究員に聞く」, 『ダイヤモンド社のビジネス情報サイト』, 2015.04.23.기사(<http://diamond.jp/articles-/70569?page=4>).

강승남, 「“더 큰 제주, 세계 중심의 제주 만들겠다”」, 『제민일보』, 2014.07.01.기사(<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791>).

박만원, 연구육, 「시진핑 정부가 키울 새 먹거리는…빅데이터·IOT·신에너지車·문화산업-중 GDP 50% 넘는 서비스산업…규제완화·대외개방 정책 펼듯」, 『매일경제』, 2015.10.26.기사(<http://news.mk.co.kr/newsRead.php?no=1018163&year=2015>).

이거석, 「「2013예산안」 5년차 MB정부 ‘균형재정회복’ 공언, 결국 ‘물거품」, 『뉴스핌』 2012.09.25.기사(<http://newspim.com/anda/view.jsp?newsId=20120925000819>).

이소진, 「예산·사업 확대…현장 체감은 ‘글썸」, 『제민일보』, 2015.07.21.기사(<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243>).

이윤정, 「제주 이주 경험담 ‘제주, 살아보니 어때’ 출간한 홍창욱씨 “섬살이는 로망과 냉혹한 현실 공존」, 『경향신문』 2015.11.04.기사(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042122475&code=100100).

제이티뉴스, 「새도정준비위원회 123개 도정 정책과제 도출 내용」, 『제이티뉴스』, 2014.06.29.기사(<http://www.jt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46034#>).

Abstract

An Essay on Jeju Cultural Space Borrowing the World View of Hwaem(華嚴)

Kim, Chi-Wan*

Metaphysical discussions of space have not been much different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in ancient times and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And most of today's spatial discourses have similarity by concluding that space 'must be living and moving practical field.' However, the concept of space and the world view of its frame are always demanded to review because they are not changing qualitatively as much as the amount of spatial discourses. Furthermore, the space is not a fixed form of an object having an area from here to there but constantly creating and changing field of life.

Today, cultural industry of our society occupies a luxury position for which the term of 'entertainment' cannot dare to be applied. In this context, Jeju has a turning point (轉機) to overcome the image of 'periphery(邊方)' and suggest differentiated cultural products. Accordingly, the space of local communities is facing considerable changes. Thus, it becomes the time to review the position of Jeju space in the East Asian ethnocartography and multiple layers (層位) of the space.

This study examines phenomenal layers of periphery Jeju as clearly marked region until now in 2015 and contrastively the layer of

* Department of Philosophy, Jeju National University.

fundamental position as 'core and local' Jeju considering various spatial discourses including such as locality discourse, and as well as it reviews the space that creates a conflict with its phenomenal position. At last,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o establish equal and 'thick' network by practicing humanities of cognitive changes between phenomenal space and abstract space and the global and the local.

Today, Jeju, attached by hash tag (#) of 'culture', drew attentions of the domestic and overseas countries likely as rediscovered region. Thus, the image of Jeju, 'a remote island (孤島) having the original culture of Korea', was manipulated (象徵操作) as 'an island with full of healing and comforts for modern people who suffered from competitions of neo-liberalism' to strategically deviate from the sense of periphery. For the manipulated image of healing island, no more healing existed in Jeju according to rapid opening and the consumption.

As shown in the image of 'healing island', the levels of consciousness of cultural migrants who moved to Jeju in these days and their expectations for living in Jeju were considerably high. However, the space of reality could not satisfy their demands because of differences between the reality and ideology, the phenomenon and the nature, and the existence and the imagination. According to assigning the responsibilities for the changes to the residents of the province or the immigrants, new aspects of conflicts, cultural conflicts, could be occurred. Moreover, how to recover and rediscover the self-identity of Jeju was considerably discussed whether to be based on the past, the present, or the future.

Jeju was the hopeful space in where non-contemporary phenomena existed simultaneously and space of maritime and content was crossed over. But on the other hand of the hope, the desires of 'entertainment' that camouflaged as 'culture' were greasy. However, it could be still positive because the existing borders between the East Asian ethnocartography became much weakened and thus Jeju could have

considerably heavy thickness of life among multi-subjects even though it was recognized as the periphery. Therefore, Jeju cultural space would be hopefully 'living space' like it was and is.

Key Word : Jeju Cultural Space, World View of Hwaecom(華嚴), cultural industry, entertainment, island with full of healing, image manipulation.

교신 : 김치완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E-mail: dasan@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6. 01. 15.

심사완료일 2016. 02. 11.

게재확정일 2016. 02. 12.